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Across the 청주

S#1. 청주 우주선 발사장(서기 2030년, 밤)

웅장한 BGM.

지지대 위에 세워진 우주선 불업.

천천히 드러나는 우주선의 모습.

우주선의 양 옆으로 세워진 거대한 지지탑으로부터 분리된다.

지지대 아래 거대한 체인바퀴가 움직이면서 우주선이 발사대로 옮겨진다.

그 곁으로 누렁개 한 마리가 신발 한 짝을 물고 어슬렁거리며 지나간다.

S#2. 우주선 발사장(아침)

일출의 모습과 더불어 우주선이 빛을 반사한다.

분사체 옆에 부착된 연료주입관이 분리된다.

우주선 곁에 세워진 거대한 비계차의 모습.

선체를 확인하고 있는 엔지니어 복장의 사람.

- 시간경과 -

차레대로 우주선으로 옮겨 타고 있는 우주복 차림의 다섯 사람.

S#3. 관제센터 상황실(낮)

여러 대의 모니터들이 즐비한 가운데,

수많은 연구 기술진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체크한다.

바쁘게 그들 사이를 오가며 최종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 헤드셋을 통해 체크상황을 전달한다.

S#4. 우주선 내부(낮)

우주복을 착용한 채 계기판과 각종 신호들을 확인하는 선장과 항해사.
그들의 뒤편으로 긴장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 있는,
안심이 되지 않는지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어서 출발하기만을 바라는 듯 들뜬 표정을 하고 있는 총 세 명의 탑승자.
그들의 탑승창 밖으로 카메라 줌 아웃되면서
점차 육중한 우주선의 선체가 드러난다.
우주선 전체의 모습이 화면을 채우고 나면
개미 한 마리조차 지나지 않을 듯 발사장 주변이 고요하다.
카메라 계속해서 줌 아웃되고.

S#5. 상황실(낮)

줌 아웃 된 발사장 모습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 화면으로 바뀌고,
기술진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긴장된 모습으로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시선을
집중한다.
스크린 옆에는 커다란 디지털 시계가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관제센터장.

센 터 장: 카운트 다운 레디! 스타트!

스크린 전면에 카운트 다운 화면이 나타난다.
10. 9. 8. 7. 6. 5. 4. 3. 2. 1. 0.

S#6. 우주선 발사대(낮)

선체의 엔진에서 가늘게 분사되기 시작하는 연기.
점차 굽어지는 연기가 순식간에 우주선 하체부분으로 안개처럼 뿌옇게 퍼진다.
순간 굉음과 함께 불꽃을 뿜기 시작하며 상승하는 우주선.
우주선 본체에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들이 차례로 분리된다.
솟아오르는 우주선 트랙 업.

S#7. 상황실(낮)

우주선이 발사되자 다시 자신들의 모니터를 주시하며 바쁜 사람들.

S#8. 상대성 집(낮)

우주선 발사 장면이 방송되고 있는 스크린 앞.

TV소리: 드디어 스페이스셔틀코리아 엠원(SSK-M1)이 웅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들이 무사히 화성에 도착하기를 기원하며 이 장면을 함께 보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스크린이 벽면 위쪽에 걸려있는 상대성의 사진들. 어린 시절, 졸업사진, 박사모를 쓴 사진.

S#9. 대기권(낮)

빠른 속력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주선.

조종실 클로즈업 되면, 침착한 모습으로 전방을 응시하고 있는 두 조종사.

얼마 뒤 분리되는 연료 분사체, 대기권을 벗어나는 우주선.

트랙 다운. 우주선 아래로 보이는 지구.

천천히 궤도에 진입하는 우주선.

S#10. 우주공간 (우주선 내부)

안전하게 궤도에 진입했음을 관제센터에 알리는 선장.

선 장: 여기는 SSK-M1, 정상궤도 진입. 산소시스템 가동완료. 로저.

관제센터: SSK-M1, 궤도진입 확인. 행운을 빈다. 로저.

보고가 끝난 선장과 항해사, 안전벨트를 풀다.

선 장: (헬멧을 벗고 뒤를 돌아보며)이제 벨트를 푸셔도 됩니다.

선장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안전벨트를 풀다.

한 니 발: 이놈의 헬멧 왜 이리 작은거야!(헬멧 벗고 머리를 털며 투덜거린다)

공 학 도: (벨트를 꼭 움켜 쥔 채)난 비행기가 싫어...

상 대 성: (헬멧 벗으며 안도의 숨)후~우.

선 장: (웃으며)안전하니까 벗어도 됩니다. 벨트가 맘에 들면 계속 하고 있

어도 뭐랄 사람은 없으니 좋을 대로 하시죠.

한 니 발: 기분 푸시죠. 그리고 이건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이랍니다.

상 대 성: 박사님은 생명 탐사 담당이시니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공 학 도: (겁을 먹은 표정)선장님, 화성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 대 성: 화성까지의 거리는 7천 7백만 km입니다. 탐사선의 속도가 대략 112km/초니까... 계산을 해보면 7천 7백만/112km/s는... 68,750초가 걸립니다.

한 니 발: 그게 며칠이나 됩니까? 저도 화성은 처음이라...

상 대 성: 6만 8천 7백 50초면... 1천 1백 45.8분 정도가 되고, 그러면 대략 191시간 정도니까,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8일 정도 걸릴 겁니다. 광속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2.99792458 \times 10^{10} \text{m/s}$ 이고, 7천 7백만/ $2.99792458 \times 10^{10} \text{m/s}$ 가 되면...

공 학 도: (짜증내며)아 계산은 됐구요! 좀 쉽게 말해줄 수는 없나요?

상 대 성: 뭐 실제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을 낸다면...지금 착륙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 니 발: (덤덤하게) 빨리 퇴근하고 좋네.

상 대 성: 하하, 하지만 아직은 광속을 재현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8시간 정도만 참으시면 될 겁니다.

선 장: 항해사는 중력 가동장치 확인하도록. 그리고 박사님은 변속 코어가 어떤지 체크 좀 해주시죠.

항 해 사: 예, 캡틴.

상 대 성: 예, 그러죠.

공 학 도: (징징대며)8시간이나 어떻게 참아...

선장은 자동 항법장치를 고정시키고,
 공학도는 여전히 벨트를 꼭 쥔 채 앉아 있고, 상대성은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꼽고 우주 공간을 바라본다.
 음악이 흐른다.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S#11. 관제센터(낮)

SSK-M1이 대기권을 벗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중인 사람들.
한쪽 편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체크중인 허불.
무언가 미심쩍은 모습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
그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바쁜 사람들.

S#12. 상대성 집(낮)

우주선 발사 장면이 끝나고 보도 화면으로 바뀐 스크린.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

뉴스소리: 지구를 벗어난 SSK-M1은 머지 않아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연료를 수습하고 다시 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머니 손에 상대성 졸업 사진이 들려있다.

S#13. 우주선 변속 제어실

안전 창 너머로 커다란 코어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선장과 상대성.

선 장: 광변속 진입시간은 설정은 완료 되었습니까?

상 대 성: 예, 잠깐 동안 커피나 한 잔 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나면 짜릿한
 롤러코스터에 탄 기분이 될 겁니다.

선 장: 저도 화성까지는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는군요.

두 사람이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뜨면 코어 클로즈 업.
천천히 돌고 있는 구체의 코어에서 잠시 스파크가 인다.

S#14. 우주선 휴게실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탑승원들 선장의 말을 듣고 있다.

선 장: 이제 곧 SSK-M1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밖을 내다보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잘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착륙할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항해사에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선장이 말을 끝내고 나가자 잡담을 시작하는 사람들.

한 니 발: 박사님은 행성간 비행이 처음이이십니까?
공 학 도: 처음은 아니지만...
한 니 발: 처음도 아니신데 그리 떠실 필요는 없잖습니까.
공 학 도: 아 처음이고 자시고 난 비행기가 싫단 말ियो.
한 니 발: 그럼 박사님은요?
상 대 성: 예, 전 처음입니다.
한 니 발: 그러십니까? 박사님은 침착하시길래 경험이 많으신 줄 알았습니다.
상 대 성: (미소 지으며)제가 만든 광변속엔진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좀 떨리긴 합니다. 하하.
한 니 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었다는 광속엔진을 설계하신 분이십니까? 두 분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실 때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제 임무인데, 생각해보니 박사님께 우리 모두의 안전이 걸려 있는 셈이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 대 성: (멋쩍은 웃음)그런 셈인가요?

그때, 갑자기 우주선 선체가 흔들리며 덜컹거린다.

공 학 도: (놀라며 탁자를 붙잡고)뭐야!
상 대 성: 놀라지 마세요, 이제 광변속이 시작되었나 보네요.
한 니 발: (덤덤하게)광변속이라고는 하는데 뭐 비행기보다 덜하군요.

S#15. 우주선 변속 제어실

코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에너지 입자들을 방출하고 있다.

S#16. 우주선 휴게실

한 니 발: 박사님은 젊어보이시는데 언제부터...

(E) 쿠쿵~

한니발이 말을 하던 도중 선체가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리더니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한다.

공 학 도: (탁자를 붙잡고) 뭐야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상 대 성: (당황한 듯한 표정)

한 니 발: 박사님 이거 원래 이런 겁니까?

상 대 성: 원래 이렇지는 않은데...

한 니 발: 그럼 정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거 아닙니까?

공 학 도: 이거 봐! 비행기는 싫다니까!

점점 더 크게 흔들리는 선체.

선장(off): 비상사태! 비상사태! 전원 조타실로! 전원 조타실로!

S#17. 우주선 변속 제어실

무섭도록 빨리 움직이는 변속 코어.

순식간에 에너지 파장이 부풀어 오르고 폭발한다.

S#18. 우주선 이동 통로

공학도, 한니발, 상대성이 흔들리는 선체의 벽에 부딪히며 이동한다.

(E) 쿵!~

폭발음과 함께 넘어지는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이 중력을 잃고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른다.

S#19. 우주선 조타실

선장과 항해사가 각종 계기판을 살피며 선체의 이상을 확인한다.

항 해 사: 선장님! 변속 엔진이 나갔습니다. 교신이 끊겼고, 중력 센서에도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 장: 차단막 작동하고, 전원 우주복 착용시켜!

항 해 사: 예, 알겠습니다.

항해사 벨트를 풀자 몸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때 조타실 문을 열고 뚝뚝 뜬 채 힘겹게 들어오는 세 명의 사람들.

항해사가 그들을 돕는다.

항 해 사: 전원 우주복 착용하시고 안전벨트 착용하십시오!

항해사의 말에 따라 우주복을 착용하는 사람들,

공중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겨우 자리에 벨트로 몸을 고정시키자,

항해사가 그들에게 헬멧을 씌우고 자신도 복장 착용을 완료한다.

선 장: 변속 엔진 이상으로 인해 선체가 파손되었습니다. 선두를 분리시켜
 귀환을 시도합니다.

공 학 도: 엔진이 고장나면 어떡해~ 이러다 죽는 거 아냐? 뭐야 당신, 당신이
 엔진 만들었다며!(상대성 바라보며)

한 니 발: 호들갑떨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십시오!

상 대 성: (당혹스런 표정)이럴 리가 없는데...

선 장: 선체 분리! 보조 엔진 작동!

선장의 말에 따라 항해사가 신속하게 기기를 작동시킨다.

S#20. 우주공간(우주선 외부)

엔진 부위가 폭발하며 타고르고 서서히 선체가 분리된다.

곧바로 동체로부터 분리된 선체의 보조 엔진이 점화된다.

점점 멀어지던 동체로부터 다시 한 번 폭발이 일어나고 후폭풍이 분리된 선두를 덮
친다.

S#21. 우주선 조타실

공 학 도: (안절부절하며)여긴 어디쯤인데, 보조 엔진은 안전한 거야? 그걸로
 지구까지 갈 수는 있는 거야?

선 장: 가야죠! 갈 겁니다.

선장의 말에 모두들 침묵하고 전방을 응시한다.

순간 폭발로 인한 후폭풍이 선체를 덮치며 심하게 흔들린다.

공 학 도: (두 손을 모은 채)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 니 발: 그 입 좀 닥치지 못해!

공 학 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S#22. 상대성 집(저녁)

어머니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다.

조리대 위에 놓인 냄비가 끓어 넘치는 것을 알고 뛰어가는 어머니.

- 시간 경과 -

쇼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작은 로봇이 쟁반을 들고 다가온다.

어머니는 쟁반 위의 찻잔을 받아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린다.

찻잔을 떨어뜨리자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는 어머니,

발밑으로 청소로봇이 다가와 깨진 조각을 치운다.

S#23. 우주선 조타실

공 학 도: 여기가 어디야? 선장!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선 장: 항로를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조만간 제 항로에 진입할 겁니다. (주인공 보며)이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박사님이 보조 엔진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상 대 성: 예, 그럴게요.

상대성은 머리 위쪽에서 작은 모니터를 끌어내려 키를 입력하고 엔진의 이상 여부를 체크한다.

상 대 성: 현재로선 괜찮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여섯 시간쯤 되면 지구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 학 도: 괜찮다는 게 무슨 의미야! 정상인거야 아님 그냥 괜찮은 정도라는 거야! 그리고 화성까지 여덟 시간이라더니 지구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섯 시간이나 걸리냐고!

한 니 발: 이 양반이 정말! 거 좀 얄전히 있으라니까! 당신 때문에 더 불안하잖아!

공 학 도: 그런데, 당신은 아까부터 왜 반말이야!

한 니 발: 아까부터 계속 반말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래!

선 장: (버럭하며)조용히들 하세요! 지금 이렇게들 싸우실 때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돌아가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니까 좀 얄전히 계시죠!

공 학 도: (기죽은 목소리)엔진을 만든 놈이 책임을 져야...

한 니 발: (공학도 목을 움켜쥐며)말로 할 때 조용히 해.

불안한 표정의 연구진과 조종사들은 잠시 침묵 속에 놓인다.

S#24. 지구 관제센터(밤)

혼자 남아 SSK-M1의 궤적을 체크하던 연구원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때 상대성 친구가 들어온다.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온 친구는 졸고 있는 연구원 몰래 자리에 앉아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입력한다.
 모니터 클로즈 업 되면, 설계 자료가 다른 자료로 대체되는 모습이 나온다.
 입력이 끝나자 다시 몰래 빠져나가는 친구.
 친구가 나가자 인기척에 잠이 깨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연구원, 다시 졸기 시작한다.

- 시간 경과 -

연구원이 졸고 있는 상황실에 다른 연구원이 들어온다.
 졸고 있는 연구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쳐 깨우고.
 졸음에 눈을 비비며 시계를 바라보는 연구원, 새벽 5시.
 근무자가 교대된다.
 교대를 한 연구원은 모니터를 체크하더니 갑자기 놀라듯 일어서서 마이크를 집어 든다.

연 구 원: SSK-M1 실종! 반복한다. SSK-M1 실종! SSK-M1 실종!

관제센터 전역에 비상신호가 울리기 시작한다.

S#25. 우주선 조타실

선 장: 중력가속도 확인!
항 해 사: 중력가속도 확인!
선 장: 고도 확인!
항 해 사: 고도 확인!
선 장: 진입속도 확인!
항 해 사: 진입속도 확인!
선 장: 이제 곧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륙했을 때보다 더 진동
이 클 테니 안전벨트 확인하시고 착륙에 대비하십시오!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모두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숨을 죽인다.

S#25. 우주공간(지구 상공)

대기권에 진입하는 우주선의 선두에 마찰로 인한 빛이 일어난다.
대기권으로 진입하고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우주선.
잠시 후 역 추진 엔진에서 불꽃이 분사된다.

S#26. 우주선 조타실

선 장: 보조 엔진 정지!
항 해 사: 보조 엔진 정지!
선 장: 제동 장치 가동!
항 해 사: 제동 장치 가동!
선 장: 에어 웨이 확인! 랜딩 기어!
항 해 사: 에어 웨이 확인! 랜딩 기어 온! 선장님! 랜딩기어가 말을 듣지 않습
니다!
선 장: 비상착륙모드!
항 해 사: 비상착륙모드 온!

사정없이 떨어지는 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조종사들.
잔뜩 겁을 먹고 벨트를 붙잡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위로 개인별 비상 Shiled가
형성된다.

S#27. 지구(새벽)

대기권을 지나 구름을 뚫고 계속해서 낙하하는 우주선.
후미의 보조 엔진이 꺼지고 역 추진 엔진이 더욱 세게 불을 내뿜으며 하강한다.
선체의 후미에서 비상 낙하산이 펼쳐지고,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이윽고 큰 충격과 함께 지면 위로 떨어지는 우주선.

S#28. 관제센터(새벽)

사람들로 꽉 들어 찬 관제센터.
초조해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SSK-M1과 교신을 시도한다.

교 신 자: 여기는 관제센터, 여기는 관제센터, SSK-M1 응답하라. SSK-M1
 응답하라. SSK-M1, 여기는 관제센터.

책 임 자: 계속해서 위치 추적해 보고, 상황보고 해.

센터를 나가려는 책임자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묻는다.

남 자: 기자들에게 뭐라고 발표해야 하나요?

책 임 자: 아직 알리지는 말고 윗선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간 좀 끌어.

책임자 밖으로 나간다.

s#29. 우주선 내부(새벽)

조종사 둘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고,
심하게 일그러진 우주선 안에서 한니발이 썰드막을 찢고 기력을 다해 빠져나온다.
다른 사람들의 썰드를 찢는 한니발.
먼저, 상대성을 꺼내고 공학도를 꺼낸다.

(E) 쿨럭 쿨럭

기침을 하며 썰드 막에서 빠져 나오는 상대성,
처참하게 망가진 조타실 내부를 둘러본다.

상 대 성: 다들 무사한가요?

한 니 발: 선장님과 항해사는 보시다시피... 공학도는 잠시 기절한 것 같은데
 곧 깨어날 겁니다.

상 대 성: 그런데 어디로 착륙한 건가요?

한 니 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학도를 깨우고 우주선 밖의 상황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 잘 모르니 박사님께서 교신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상 대 성: 예, 그러죠.

상대성이 부서진 기기들을 살피는 동안 공학도의 뺨을 때리며 깨우는 한니발.

S#30. 우주선 밖(새벽)

조타실의 입구가 열리고 한니발과 상대성, 공학도가 밖으로 나온다.

그들의 눈앞에 숲이 펼쳐져 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세 사람은 무작정 숲을 걷기 시작한다.

한참을 걷다가 세 사람의 눈앞에 성벽이 나타난다.

상 대 성: 여기가 도대체...

한니발은 성벽 위에 올라선다. 그의 눈앞에 넓게 펼쳐지는 산 밑의 광경.

BGM 웅장하게 깔리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건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S#31. 장례식장(낮)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일제히 발사하는 제복차림의 군인들.

사람들이 차례로 SSK-M1 탑승자들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국화를 올려놓는다.

상대성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오는 상대성 친구.

절을 올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

주변 여기저기에서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S#32. 상대성 집(낮)

스크린 앞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상대성 어머니.

별다른 표정 없이 차를 마신다.

앵 커: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번 SSK-M1의 임무 실패 원인은 가변속장치의 결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변속장치의 연구를 함께 진행했던 친구

박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허 불: 변속엔진의 원리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성 박사의 이론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변속을 가하기 위한 제어장치에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머니는 리모콘을 들어 스크린 화면을 꺼버린다.

어 머 니: (Na)죽긴 누가 죽었다고 저러누. 아직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장례식부터 지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나구.

중얼거리면서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어머니.

S#33. 수개월 후 우주관제센터(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다. ‘엔진개발부장 허불.’

열심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

엔진의 설계도가 화면을 채우고 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비가 들어온다.

경 비: 아이고, 박사님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신가요?

허 불: (고개를 돌리며)아, 네...

경 비: 박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허 불: (웃으며)네~ 꼭 성공할 겁니다.

경 비: 그런데 몇시까지 계실 건가요?

허 불: 글썄요, 곧 퇴근해야죠. 혹시라도 늦게 되면 말씀드리죠.

경 비: 아, 예~ 그럼 저는 다른 데도 돌아봐야 해서 이만... 수고하세요 박사님~

허 불: 네...

경비 퇴장 후 잠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기지개를 펴는 친구. 눈을 감는다.

- insert S#11 회상 -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허불,
모니터에 엔진의 설계도면이 나타나 있다.

이전 설계도면을 다른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는 허불.
알 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난다.

- 회상 끝 -

다시 모니터를 응시하는 허불.

허불(Na): 그래, 제어장치에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니 말이 맞았어. 아 무
리 살펴봐도 애초에 니가 설계했던 공식이 맞아. 내가 조금만 더 손
보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일주일 후면 니가 성공 못한 일을 내가 이루게 될테니까.

O.L.

S#34. 숲속(아침)

세 사람이 길을 헤매고 있다.

공 학 도: (칭얼대며)그냥 우주선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니 발: 거기서 시체들 유전자나 채취하시려면 맘대로 하시죠.
상 대 성: (한니발 바라보며)그런데 이런 곳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니 발: 저도 이런 숲은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으리라
 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 학 도: 조심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한 니 발: (짜증)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공 학 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한 니 발: (비웃듯)왜, 어디서 곰이라도 튀어 나올까봐요?

그때 숲에서 검은 물체 하나가 서서히 다가온다.

곰 소리(E) 우오오오~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춘 세 사람의 앞에 곰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일어선다.

상 대 성: (속삭이며)소원 성취했는걸요?
공 학 도: (덜덜 떨며)저...저거... 진짜... 곰?

한 니 발: (Na)곰은 동물원에서만 봤는데 이거 입장료라도 내야 되겠군.
상 대 성: 어떡하죠?
한 니 발: 일단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신호를 하면 그때...

한니발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도망치는 공학도.

(E) 우오오오~

공학도의 움직임에 득달같이 곰이 달려든다.

한 니 발: (큰소리로)뛰어!

상대성과 한니발도 달아나기 시작한다. 빠른 속도로 그들을 쫓는 곰.

S#35. 사찰(아침)

깔끔하게 쓸어 놓은 마당이 펼쳐진 우아한 목조 건물의 고즈넉한 사찰,
바람에 풍경이 살랑살랑 움직인다.
법당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곁에 누렁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고,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이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지속되던 불경 소리가 멈추고 법당 안쪽에서 스님이 걸어 나온다.
문앞까지 걸어 나온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숲쪽 방향을 바라본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려 하는데 누렁개가 신발 한 짝을 물고 달아나자 발을 멈칫하는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말을 내뱉는다.

스 님: 저런 개스애...(말을 급히 멈추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핀다)

마당 한 가운데서 누렁개가 신발을 물고 스님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S#36. 산속(아침)

정신없이 도망치는 세 사람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곰.
공학도는 무리에서 갈라져 혼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친다.
곰은 망설임 없이 공학도를 쫓아가고
정신없이 달리던 상대성과 한니발은 계속해서 함께 도망친다.
한참을 달리다가 공학도가 없는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춘다.

상 대 성: (헉헉대며 무릎을 꿇고 서서)공, 공박사, 공박사님 못봤어요?
한 니 발: (가쁜 숨을 몰아쉬면 침을 삼킨다)모, 모르, 켜습니다.
상 대 성: (침 삼키며)어떡하죠? 찾으러 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니 발: (헉헉대며)달리는 속도로 봐선 곰보다 뒤쪽에서 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죠.
상 대 성: (뒤를 돌아보며) 팬찮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S#37. 산속(아침)

공학도가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며 달리고 있고, 그 바로 뒤에서 뒤통수에 코가 닿을 듯 가까이 곰이 따라붙는다.

공 학 도: 아아아아아~~저리 가! 저리 가란 말야!

순간 공학도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곰,
공학도는 뒤편에서 자신의 머리 위로 비행을 하는 거대한 곰의 몸을 보며 놀라 넘어지고, 날아오는 곰은 공학도를 훌쩍 뛰어넘어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데굴데굴 구르다가 갑자기 공학도 눈앞에서 사라진다.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던 공학도는 살짝 고개를 들어 실눈을 뜨고 앞을 바라본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서는 공학도.
그의 불과 몇 미터 앞에 낭떠러지가 놓여 있다.
그곳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엎드려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는 공학도,
낭떠러지 아래에 곰이 뺨어있다.

S#38. 산속(아침)

숲속을 걷던 상대성과 한니발은 멀리 사찰을 하나 발견하고 정신없이 그쪽을 향해 달려간다.

S#39. 사찰 마당(아침)

스님이 입에 신발을 물고 있는 누렁이를 쫓아 마당을 뱅뱅 돌고 있다.
스님을 약올리듯 이리 저리 피해다니던 누렁이는 갑자기 사찰 입구로 뛰어가서 신발을 내려놓고 짖어대기 시작한다. 그 틈에 누렁이 곁으로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가

냉큼 신발을 주워드는 스님.

스님: (누렁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이런 개썩...어머나!

문 여는 소리(E) 끼이~익.

누렁이의 머리를 쥐어박던 스님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대성과 한니발의 모습에 놀라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찧는다.

맹렬하게 짖어대는 누렁이 때문에 상대성과 한니발은 꿈쩍을 못하고 서서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 (눈을 휘둥그레 뜯 채)누구...세요?

상대성은 합장을 한 채 엉거주춤 목례를 하고, 한니발은 금방이라도 누렁이와 싸울 태세를 한다.

S#40. 객사 안(아침)

스님: (차분하고 근엄하게)곰에 쫓기셨다구요?

상대성: 예, 곰이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스님: (찾주전자를 들며)곰은... 크지요.

스님은 상대성과 한니발에게 차를 따라준다.

한니발은 찻잔을 든 채 열린 방문 밖에서 아직도 으르렁대고 있는 누렁이와 눈싸움 중이다. 한니발의 찻잔에 차를 따르던 스님은 계속해서 이상해 보이는 옷차림을 흘끗흘끗 바라보다가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라버리고, 한니발이 넘치는 차에 손을 데고 잔을 떨어뜨린다.

한니발: (쥌뻘뻘 손을 빼며)앗, 뜨거!

스님: (당황하며)아이고, 이거 송구합니다.

(태연하게 합장해 보이며)관세음보살~

상대성: 그런데 여긴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스님: 예, 구룡사입니다만...

(위아래를 훑어보며)이곳 분들이 아니신 듯 하운데 거사님들께서는 정확히 어디쯤에서 오신 분들이신지요? 차림새로 보건대 도가(道家)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신지요?

상대성: (의아한 듯)도가요?

스 님: (왼쪽 가슴의 태극기를 가리키며 스스로 대견한 듯)그 태극과 4괘 문양을 보고 그러시리라 짐작했습니다. 허허허.

상 대 성: (어리둥절하며)예?

한 니 발: (뜨거운 손과 누렁이를 번갈아 보다가)저희는 우주선이 추락하는 바람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스 님: (고개를 끄덕이며)아~ 강을 건너오신게군요. 그런데 어찌다가 배가 가라앉게 된 겁니까?

상 대 성: 강이요?

한 니 발: 하하하, 스님 센스 있으시군요. 요단강을 건널 뻔 하긴 했습니다.

스 님: (점잖게 마치 안다는 듯)아~ 요단강 말씀이십니까.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그런데... 센~스?...

상 대 성: (고개를 갸우뚱하며 스님을 바라본다) 아니...그게...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누렁이는 배를 깔고 엎드려 눈을 감는다.

S#42. 산속(낮)

산에서 내려온 공학도가 잔뜩 지친 표정으로 혼자 일행을 찾으며 걷고 있다.

공 학 도: (Na)도대체 어디들 간거야~
(큰소리로 외친다)상박사~ 상박사아~

얼마 걷지 않아 그의 눈앞에 고풍스런 마을이 나타난다.
공학도는 마을 길을 지나며 냇을 놓고 두리번거리고,
민복 차림의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친다.

공 학 도: (Na)민...속촌인가?...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때 골목 맞은 편에서 말을 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다.

S#43. 객사 안(낮)

스님이 없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그 앞에 상대성이 답답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밖에선 한니발이 신발을 물고 도망치는 누렁이를 따라 마당을 빙빙 돌고 있다.

스 님: 그거 참 기특한 일이로세~ 거사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말씀이십니까?

상 대 성: 정말 여기가 청주가 맞나요?

스 님: 허면, 그 날아다니는 배로 천축국에는 가보셨습니까?

상 대 성: 혹시 전화 있으면 좀 쓸 수 있을까요?

스 님: ...

상 대 성: ...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물어볼 것이 먼저인 두 사람은 잠시 얼굴을 마주 보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느라 조용해진다. 그때 밖에서 한니발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니 발: 야 이 개새끼야!

누 령 이: 깨갱~!

여전히 누령이를 쫓던 한니발은 나머지 한쌍의 신발을 집어 던지고, 신발에 정통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누령이는 놀라서 입에 물었던 신발을 버려두고 달아난다. 한니발은 누령이가 버린 신발을 주워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온다.

한 니 발: (자리에 앉으며)스님! 그런데 지금 몇시쯤이나 됐습니까?

상대성과의 정적을 깨고 스님은 친절하게 답을 한다.

스 님: 오시쯤 됐을 겁니다.

한 니 발: (놀라듯)해가 짹짹한데 벌써 다섯 시나 된 겁니까?

스 님: (한니발에게)천축국에는 가보셨습니까?

S#44. 동헌(낮)

온몸이 뽕뽕 뭉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공학도. 창을 든 포졸복장의 사람들이 공학도 옆에 줄줄이 서 있고, 그 앞으로는 사또 차림을 한 사람이 마루 위에 앉아서 그를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다.

사 또: (근엄하게)냉큼 고하지 못할까! 어디서 온 누구이며 무얼 하는 놈이더냐!

공 학 도: (모르겠다는 듯)어...이벤튼가요?

공학도의 대답에 사또는 서 있는 호장에게 조용히 묻는다.

사 또: (속삭인다)이벤튼가가 어느 나라 말이더냐?

호 장: (속삭인다)말꼬리가 요~인걸로 보아 왜놈의 말인 듯하옵니다.

호장의 말에 사또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친다.

사 또: (잡아먹을 듯이)네 이노~오옴! 오랑캐들이 어찌 이곳을 염탐하고 있었더란 말이냐!

공 학 도: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리얼하네~

사 또: 리어라네? 네 이노오~옴! 예가 어디라고 그런 망발을 입에 주워 담는 게냐! 저 왜놈을 당장 하옥시키도록 하여라.

호 장: 저 놈을 당장 하옥시키랍신다~!

공학도는 포졸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재미있다는 듯 신기하게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S#45. 구룡사(낮)

스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대성을 바라보고 있다.

스 님: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김을 내뿜으며)그러니까 거사님께서 미륵이시라 그 말씀이십니까? 이거 놓이 지나치십니다.

상 대 성: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친다)미륵이 아니라 미래에서 왔단 말이죠.

스 님: (따지듯)아직 보지도 못한 내세에서 오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상 대 성: 내세라는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꼭 틀린 의미가 아니라...어휴쩍 답답하네.

상대성은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젓히고 한숨을 쉰다.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라는 듯 스님도 한숨을 쉰다. 그러자 옆에 잠자코 있던 한니발이 끼어든다.

한 니 발: (근심어린 표정으로)박사님, 이제 어떡하죠? 정말 지금이 고려시대라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나요?

상 대 성: (한숨만 쉰다)후우~...

한 니 발: 우주선을 다시 수리할 수 있을까요?

우주선이라는 말에 스님은 눈이 번쩍 뜨인다.

스 님: 내세에서 타고 오셨다는 그 배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한 니 발: 예, 절 뒤편 숲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스 님: 거사님 말씀대로라면 소송을 직접 그리로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한 니 발: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정비사 자격증부터 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대성은 앞이 막막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비비더니 눈을 부릅뜬다.

상 대 성: (한니발에게)일단 우주선을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어디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한 니 발: 좌표를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알 것 같습니다.

상 대 성: 그럼 안내 좀 해 주세요. 정말 고려 시대라면 우주선이 발각되면 난리가 날지도 모르니까요.

(서둘러 일어서며)스님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

한니발이 먼저 방을 나서고 상대성과 스님도 함께 그의 뒤를 따라 나선다. 어느새 다시 돌아온 누렁이가 스님의 뒷꿈치를 졸졸 따라 간다.

S#46. 우주선이 추락한 숲속(낮)

한니발이 스님과 상대성을 이끌고 우주선이 떨어진 장소에 나타난다. 엉망으로 일그러진 우주선을 보고 놀란 스님은 이마에 주름이 잔뜩 잡힐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말을 잊지 못하고, 상대성은 서둘러 우주선 안쪽으로 들어간다.

한 니 발: 스님은 여기 잠시 기다리시죠.

한니발이 상대성을 따라 우주선 안으로 사라지자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처음 보는 우주선이 신기한 듯 천천히 부서진 우주선 이곳저곳을 매만지며 탄식을 하고 누렁이는 코를 들이밀고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기 바쁘다.

스 님: (Na)이게 내세에서 날아온 배란 말이랴? 오호~ 이리 무거운 것이

구름처럼 새처럼 날아다닌다는 말이랴?

잠시 후 상대성과 한니발은 각각 시체를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킁킁거리며 우주선 밖으로 나온다. 두 사람의 어깨에 축 늘어져 있는 시체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란 스님은 황급히 경계하듯 물러선다. 바닥에 시체를 내려놓은 상대성과 한니발은 침울한 표정이다.

한 니 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까?
상 대 성: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 니 발: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쉰다)후~

떨어져서 두 사람을 관찰하던 스님은 경계를 풀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간다.

스 님: (겁먹은 듯)저...저기...거사님들...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돌린다. 두 사람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스님.

스 님: (합장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아, 아닙니다...하시던 일 마저 하시지요. 나무 관세음보살~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스님은 안절부절못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중얼중얼 불경을 외운다.

S#47. 사또 방(낮)

좌상을 앞에 두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 사또,
방문이 열린 밖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호장과 대화중이다.

사 또: 그래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호 장: 행색으로만 보아 흥건적이나 왜구는 아닌 듯 하옵니다만...
사 또: 흠...그래? 왜구들이 저리 말쑥한 차림새일 리가 없지. 그놈의 가슴팍에 그려진 팔괘 문양은 떼놈들 것임에 틀림없고, 이성계를 시하러던 걸 눈치 채 신진사대부들이 떼놈들과 손을 잡고 보낸 자객일지도 모르겠네.
호 장: ...

사 또: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조정에서 머지않아 나를 해하려 할 것이란 건 알고 있지만 이리 촌각을 다투게 될 줄이야~ 그럼 그대 생각엔 그놈을 어찌 하면 좋을 것 같은가.

호 장: 일단 주리를 틀어서라도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는지를 밝혀내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하옵니다.

사 또: 흠... 그럼 일단 그리 하도록 하고, 혹시 잔당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근방을 샅샅이 수색하여 그 문양을 지닌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게.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손도 못쓰고 당하게 될 것일세!

호 장: 예, 나으리~

명을 받은 호장이 자리에서 일어서 뒷걸음질 쳐 자리를 빠져나간다.

S#48. 감옥(낮)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공학도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 이상한 복장이 신기한 듯 죄수들이 공학도를 빙 둘러싸고 신기한 듯 관찰하고 있고, 때가 꼬질 꼬질한 그들의 행색과 며칠을 씻지 않은 듯한 냄새에 공학도는 괴로워 인상을 찌푸린다.

공 학 도: (신경질 내며)아참, 그만 좀 합시다. 아무리 실감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이거 너무하잖아요!~

죄 수 1: (신기한 듯 위 아래를 훑어보며)흥건적이어 왜구여~ 근디 고려말을 참 잘도 쓰네~

죄 수 2: 그러니께, 생긴 건 딱 오랑캐 같이 생겼는데 말이여.

죄 수 3: 아 고만들 혀~ 저놈이 지랄이라도 허면 어쩔라구 그러~

공 학 도: (짜증내며)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재밌었으니까 이제 좀 풀어달라구요~!

죄 수 1: (누런 이를 드러내고 얼굴을 들이민다)근디 아까부터 먼 소리를 하는겨~

공 학 도: 이제 됐으니까 그만 한다구요오~!

공학도의 목소리에 밖에 서 있던 포졸이 으름장을 놓으며 한 마디를 던진다.

포 졸: 아, 시끄러워~ 조용히 못혀!!

공 학 도: (화를 내며 협박하듯)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정말 계속 이러면 고소할꺼야!

포 줄: 돛자리 깔아줄테니께 아주 지랄을 혀라 지랄을 혀!!

그때 문이 열리고 병정이 들어온다.

병 정: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주리를 틀도록 해라~!

포 줄: (어수룩하게)저...어떤 놈 말씀이신지?

병 정: (정강이를 걷어차며)저 해괴망칙한 옷을 걸친 놈 말이다!

포 줄: (얼굴을 찡그린 채 다리를 붙잡고 절룩거리며)예~ 나으리~

포줄이 감옥 문을 연다.

S#49. 산속 우주선(오후)

상대성이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우주선을 감추느라 분주하고,
곁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스님과 누렁이.
곧바로 숲속에서 한니발이 양쪽 겨드랑이에 거대한 나무를 하나씩 끼고 나타나 모
아 둔 나무 더미 위로 끌어다 놓는다.

한 니 발: (손을 털며)박사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상 대 성: 예, 이제 그 정도면 될 거 같아요.

한 니 발: 그런데 스님은 계속 그러고 계실 겁니까? 좀 도와주시든가요!

스 님: (엉거주춤 나뭇가지를 주워드는 척하며)아, 예~

상 대 성: 그나저나 이 분들을 물어드려야 할텐데 마땅한 장비도 없고 장소도
그렇고...

스 님: (눈치를 보며)화장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만...

한 니 발: 스님! 제발 그렇게 좀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희들 나쁜 사람 아녘니
다. 이분들은 사고로 이렇게 된 거랍니다.

상 대 성: 스님도 처음 겪는 일이니 그냥 이해하세요.

한 니 발: 우리가 무슨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그냥 계속 걸려
서 그러합니다.

스 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저리 생긴 게 배라고 하시니...저런 무거운 물
건이 날아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상 대 성: 이곳 정리가 끝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 스님 말대로 화장을 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대성과 한니발은 다시 시체를 어깨에 매고 자리를 뜬다. 스님과 누렁이도 그 뒤
를 따른다.

S#50. 구룡사 옆(밤)

어느덧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깊어졌다.
가지런히 쌓아올린 장작더미 위에 시체가 놓여 있고,
스님은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고 있다.
한니발이 장작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나무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윽고 장작더미 꼭대기까지 불길의 치솟고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

(E)딱! 딱!

장작 타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깬다.

- 시간 경과 -

거세게 타오르던 불길이 누그러지고 붉게 달궈진 숯처럼 은은하게 빛을 뿜어내는 장작. 어느덧 스님도 불경 외기를 멈추고 그 불빛을 바라본다.

스 님: (합장하며)극락왕생하시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상 대 성: (고개 숙여 인사)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한 니 발: 차라리 저분들이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돌아갈 방법도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니발의 말에 식어가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상대성의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스 님: 인연이 있다면 내세에서 또 만나게 되겠지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 거사님.
상 대 성: (하늘을 바라보며)제 고향이 바로 이곳 청주였답니다.

하늘 가득히 별이 떠 있고, 상대성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진다.

S#51. 회상 1.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성곽 밖에서 초등학교 시절의 상대성과 허불이 함께 뛰어논다. 성곽을 따라 돌며 뛰어 다니는 두 사람은 즐거운 표정이다. 갑자기 허불이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뒤쫓던 상대성은 깔깔깔 웃는다. 아픔을 억지로 참으며

주저앉아 까진 무릎을 살피던 허불은 자신의 발에 걸린 돌부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화풀이를 하듯 툭 튀어 나온 돌을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상대성도 함세한다. 잠시 후 흔들거리던 돌부리가 뿔뿔히 나옴과 두 사람은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진다. 다시 몸을 일으킨 두 사람은 돌부리가 뿔뿔히 나옴과 무언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땅을 파내기 시작한다. 이윽고 파헤친 땅속에서 목재로 된 길다란 상자 하나가 딸려 올라오고, 보물 상자라도 발견한 듯 두 사람은 조심스레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혀진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옷가지에서 떼어낸 듯한 조그만 태극기 하나, 그리고 처음 보는 우주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다.

S#52. 회상 2.

초등학교 교실.

철판 위에 ‘장래 희망’이라고 커다랗게 글씨가 적혀 있다. 상대성과 허불은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무엇을 적는지 목을 쭉 빼내고 상대방의 책상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위에는 똑같이 ‘우주선 조종사’라고 적혀 있다. 상대성은 책상 밑에서 사진을 꺼내 허불에게 흔들려 보인다. 허불이 그 사진을 낚아채려 하자 상대성이 재빨리 손을 빼며 사진을 다시 숨긴다.

S#53. 회상 3.

대학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상대성과 허불. 책상 위에는 각종 기계, 역학관련 책들이 쌓여져 있다.

S#54. 회상 4.

대학원 시절, 연구실.

상대성과 허불이 가운을 입고 노교수와 함께 열심히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학부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그들의 실험을 도우며 잔심부름을 한다.

S#55. 회상 5.

학위 수여식.

상대성이 박사모를 쓰고 단상에서 학위증을 받고 있다. 단상 아래에선 어머니가 자랑스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 옆자리엔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 허불이

부러운 표정으로 꽃다발을 든 채 그를 바라본다.

식장 밖으로 나온 상대성과 어머니, 그리고 허불은 옆 사람에게 부탁하여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다. 상대성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허불은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S#56. 회상 6.

시상식장.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하고 있는 상대성,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를 하는 상대성을 부러운 듯 지켜보고 있는 허불.

S#57. 회상 7.

우주연구센터.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상대성, 책상 위엔 ‘엔진개발부장 상대성’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다.

(E) 푹푹푹!

노크 소리가 들리고 허불이 들어온다.

허 불: 바빠?

상 대 성: 아냐 괜찮아, 앉아. 잠깐만~

상대성이 모니터를 끄는 동안 허불, 쇼파에 앉는다.

허 불: 내 설계는 다 살펴봤어?

상 대 성: (쇼파로 와서 앉으며)어~ 근데 문제가 좀 있던데?

허 불: 무슨 문제?

상 대 성: 니 설계대로라면 광속가변기 과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허 불: (상대성이 틀렸다는 듯)무슨~ 내가 몇 번이나 계산해 본 건데?

상 대 성: 그건 아는데, 내 계산이랑은 안 맞아.

허 불: (울컥하며)니건 맞고 내건 틀렸다는 거야?

상 대 성: 아니, 그게 아니라.

허 불: (벌떡 일어서며)아, 됐어! 학교 다닐 때부터 다 너만 잘났지 그래~!

상 대 성: 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허 불: 됐어 임마~!

상대성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는 허불, 황당한 표정으로 그 뒷 모습을 바라보는 상대성.

(E) 쿵!

허불, 핫김에 문을 무자비하게 세게 닫고 나간다.

S#58. 회상 8.

우주선 발사장.

완성된 우주선 아래에서 상대성과 더불어 우주복을 착용한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자 상대성은 그것을 지켜보던 허불에게 오라는 손짓을 한다. 마지못한 표정으로 상대성 옆으로 간 허불. 상대성이 허불의 팔을 끌어다가 자신의 어깨 위로 둘러 어깨동무를 한다. 상대성은 환하게 웃고 허불은 무언가 못마땅한 표정이다. 플래시가 터지고 다시 한 번 사진이 찍힌다.

S#59. 구룡사 옆(밤)

다 꺼진 불씨를 나뭇가지로 뒤적거리는 상대성 옆에 스님과 한니발이 나란히 앉아 있다.

스 님: (한숨)하아~

상 대 성: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지도 못하는 몸이 되버렸네요. 다들 걱정들 하고 있겠죠?

스 님: 물론 그렇겠지만 거사님께서 이리로 오게 된 것도 다 부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한 니 발: (피식 웃는다)후훗, 하나님 뜻이라 해도 못 믿을 판국에 공박사가 그 소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스 님: 이곳에서 내세에 무명(無明)한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나누어 주시며 살아가시는 것도 보리심을 행하는 일이 될겁니다.

상 대 성: 가르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곳에 적응해야 할 건 우리들일 텐데요 뭐.

한 니 발: (일어서서 넓게 퍼진 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그런데 지금 왕은 누구신가요?

스 님: 창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정창군 왕요를 왕위에 추대하셨습니다.

한 니 발: (고개를 갸웃하며)왕요? 상박사님 왕요가 누군지 아십니까?
 상 대 성: (곰곰히 생각하며)정창군이라면...공양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 님: 예, 맞습니다. 소승이 정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덕분에 저희 같은 출가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니 발: (머리를 긁적이며)공양왕이 언제쯤 왕입니까?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가방끈이 좀 짧아서...
 상 대 성: 고려 마지막 왕이 바로 공양왕이죠.
 스 님: (눈이 동그래지며)마지막 왕이라니요? 그럼 이 나라는 어찌 되는 겁니까?
 상 대 성: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고려는 망하게 될 거예요.
 스 님: 조선이라니요?
 상 대 성: 이성계가 세우는 나라요~
 스 님: (몸을 상대성에게 바짝 당겨 앉으며)그게 언제쯤입니까?
 상 대 성: 글썽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구요, 그냥 정몽주가 죽고 나서 공양왕이 원주로 귀양을 가서 죽는다는 것만 아는데요?
 스 님: 좌의정이 어찌 감히 왕을 폐하고 스스로 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니 발: (재 끌어모으기를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으며)이성계가 좌의정이었나요?
 스 님: (다급한 듯 상대성의 어깨를 붙잡으며)거사님, 그럼 수문하시중께서 어찌 돌아가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 대 성: 수문하시중이 누군데요?
 스 님: (답답한 듯 소리치며)아, 포은 선생님 말씀입니다!
 상 대 성: (어깨를 잡은 스님의 손을 걷어내며 짜증스럽게)스님, 저두 잘 몰라요. 그냥 국사 시간에 조금 배운 게 다라구요.
 한 니 발: (그건 안다는 듯 나서며)거 왜 선죽교에서 첩퇴 맞은 이야기가 그거 아닌가요?
 스 님: (경악하듯)첩퇴요?
 상 대 성: (한숨)하아~ 예, 이방원 부하들이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첩퇴로 때려 죽였다고 하더라구요.

상대성이 끝이 없는 질문에 한숨을 내 쉬고 스님은 계속해서 상대성을 보채며 질문을 늘어놓는다. 한니발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지 자리에서 일어서 주변을 오락가락하다가 발길질로 땅바닥의 돌맹이를 걷어찬다.

S#60. 동헌(밤)

햇불이 밝혀진 동헌 마당에 공학도가 의자에 묶인 채로 앉아 있고,

가랑이 사이로 굵고 길다란 장대가 두 개 엑스자로 꽂혀 있다.
그의 앞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관복을 차려 입고 앉아 있고,
포졸 두 명이 양쪽에서 장대를 잡아 벌리자 공학도가 비명을 지른다.

공 학 도: (어쩔 줄 몰라 몸을 들썩이며)아아아~~악!
사 또: (호통치며)네 이놈! 이래도 입을 열지 않을테냐!
공 학 도: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구요~!(울먹이며 눈물을 흘린다)
사 또: 이놈이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본 게로구나. 여봐라!

다시 한 번 포졸이 주리를 틀고 공학도는 미친 듯 비명을 지른다.

공 학 도: 으아아아아아악~!

S#61. 숲속(밤)

포졸들이 병정의 지휘 아래 횃불을 들고 횡대로 늘어선 채 숲속을 수색하고 있다.
산 위쪽을 향해 수색을 해 올라가던 포졸 둘이 이야기를 한다.

포 졸 1: 아니 근디 댜 놈들이 있긴 있는거여?
포 졸 2: (발로 여기저기 풀들을 찢히며)넌들 아는감? 그냥 수상한 옷을 입은
놈들을 다 잡아들이라는데 나두 잘 모르겠어~
포 졸 1: 오밤중에 이게 댜 고생이라~
포 졸 2: (허리를 쪽 펴고 이리저리 뒤틀며)그러게 말이여. 피곤해 죽겠는디
아 밤새 산속을 다 뒤질 셈인가~?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병정의 호령이 떨어진다.

병 정: 뭇들 하느냐! 가만히 서서 노닥거리지들 말고 구석구석 빼놓지 말고
살펴보도록 해라!
포 졸 1: (속삭이며)허, 참, 귀는 드럽게 밝은갑네~
포 졸 2: (속삭이며)그러게 말여~
병 정: (호통)말귀를 못 알아 들은 것이냐!

병정이 재차 호령을 하자 허겁지겁 다시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포졸1,2.
계속해서 산 위쪽으로 올라간다.

- 시간 경과 -

절벽 밑을 수색하던 포졸이 큰 소리로 다른 포졸들을 부른다.

포 졸 3: 여기여!~ 여기! 다들 어여 와바~!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포졸들, 햇불들이 절벽 아래를 환하게 비춘다.
뒤늦게 도착한 병정이 다른 포졸들을 쫓히고 앞으로 나온다.

포 졸 3: 오셨슈? 여기, 여기 좀 보श्य~

포졸이 가리키는 곳에는 곰 한 마리가 죽어 있다.

병 정: Na(미간을 찌푸리며)흠... 곰이 죽어 있다... 대단한 놈들이군.

포 졸 3: 아, 이게 무슨 일이라유?

병 정: (절벽 위를 쳐다보며)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듯하다.

포 졸 3: 곰이 암만 미련해도 절벽에서 떨어질 정도로 미련하진 않을텐디유?

병 정: (포졸을 돌아보며)멍청한 놈~ 제 스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더냐.

포 졸 3: 아, 얼마나 힘이 장사길래 곰을 밀어던진대유?

병 정: 이는 필시 한두놈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 근처 가까이 놈들이 있음이 분명하니 경계를 늦추지 말도록 해라.

포 졸 3: 예, 알겠구먼유~

병 정: (모두에게)근처에 놈들이 있으니 혼자 떨어지지 삼삼오오 짹을 지어 움직이도록 하고 무언가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포 졸 들: (힘차게)예!

병정이 자리를 뜨자 포졸들도 다시 흩어져 삼삼오오 짹을 지어 움직인다.

포 졸 1: (걱정스럽게)아, 어떤 놈들이길래 곰을 창도 없이 잡아서 절벽으로 던져버린다~?

포 졸 2: (두려움에 떨며)그러게 말여~ 이거 원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질 못하겠구먼~

포 졸 3: (비웃듯)윽랄래? 시방 겁들 먹은겨? 허이고~ 사내놈들이 말여~

포 졸 1: 아 곰도 때려잡는 놈들인디 무섭지 않으면 그게 정상이여?

포 졸 3: (창을 든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이며)놈들이 나타나면 내가 앞장

설테니께 자네들은 도망들이나 치지 말어~
포 줄 2: 그림 어여 앞장 서~ 이리고 있다가 또 혼나지 말고.

포줄들이 천천히 주변을 경계하며 전진한다.

S#62. 구룡사 객사 안(밤)

상대성과 스님 한니발이 찻잔을 마주하고 앉아있다.

스 님: 거사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며칠내로 사단이 나겠군요. 나무 관세음보살~(합장한다)

상 대 성: (당연하다는 듯)뭐 역사가 그러니...

한 니 발: (양반다리를 고쳐 앉으며)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 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다고 해서 역지로 결과를 바꾼다는 건 새로운 업을 쌓는 일이지요. 본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겨나는 일은 없는 법, 세상살이가 본디 고(苦)인데 그걸 바꾸려드는 게 욕심이고 집착이니 그를 멸하지 못하면 도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게지요.

한 니 발: (다소 흥분하며)역사를 바꾸자는 게 나쁜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침략을 받는 일도 없을테고, 땅 텅어리도 넓어질테고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상 대 성: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꾼다고 해도 미래가 계산한 대로 바뀌는 건 아니죠.

한 니 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데 왜요?

상 대 성: 막말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거란 걸 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막을 건데요? 뭐 어떻게든 막는다고 쳐도 그러면 고려왕조가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되겠어요? 언제가는 다른 왕조가 들어설테고 또 그 왕조가 자기가 바라던 왕조일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스 님: 이 거사님이 말씀이 옳은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다는 건 한낱 인간의 힘으로는 무리일 겹니다.

상 대 성: 당장 정몽주가 죽는 걸 막는다고 해서 이성계나 이방원의 세력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다 해도 그전에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한 니 발: (기가 죽은 듯)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어날 일들을 아는 만큼 그걸 잘 활용하면 안 좋은 일들은 피할 수 있잖습니까.

상 대 성: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고 그 변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

는 게 문제죠. 뭐 잘 하시겠지만, 제가 기침 한 번 한 게 태평양을 건너게 되면 허리케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니 발: (완전히 풀이 죽어) 뭐 그야...

스 님: 태평양이니 허리케인이니 하는 말은 소송이 잘 모르겠지만 두 거사님께서 어찌 되었던 이곳에 오신 건 다 그만한 연유와 인연이 있음이니 이곳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우선일 쥬니다.

상 대 성: 스님 말씀대로 일단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나중에 걱정하고 당장 급한 일부터 해결하도록 하죠.

한 니 발: 당장 급한 일이라뇨?

상 대 성: 공박사님부터 찾아야죠.

한 니 발: (이마를 손으로 탁 치며) 아차~! 공박사~.

S#63. 숲속(밤)

수색을 하던 병정이 숲속에서 가지들이 뭉텅뭉텅 잘려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급히 그 흔적을 따라간다. 병정을 따르던 두 명의 포졸은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른다. 잘려나간 나뭇가지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와 풀들로 수북이 덮힌 무언가를 발견하는 병정, 나뭇가지 하나를 꺾히자 금속의 표면이 살짝 드러난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천천히 주변의 나뭇가지를 걷어내고 서서히 우주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드러나는 우주선의 모습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S#64. 동헌(밤)

포졸이 기절해 있는 공학도에게 물을 퍼붓는다.

물세례에 정신을 차린 공학도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통사정을 한다.

공 학 도: (울먹이며) 살, 살려주세요...

사 또: 이제 입을 열 맘이 생겼느냐?

공 학 도: 예~ 뭐, 뭐든지 다 다 말할테니 제, 제발 살려주세요...

사 또: 살려줄지 어떨지는 네놈한테 달렸느니라. 자~ 네놈의 주인이 누구더냐?!

공 학 도: 주, 주인이라뇨?

사 또: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게냐?!

공 학 도: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 또: 다시 한 번 묻겠다. 네놈의 주인이 누구냐! 이성계가 보냈더냐?!

공 학 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성계요? 태조 이성

계?

사 또: (벌떡 일어서며) 뭐라?! 태조 이성계? 아니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태조라는 망발을 게다 갖다붙이는 것이냐! 드디어 네놈들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여봐라! 저놈을 죽지 않을 만큼 경을 치도록 하여라!!

공 학 도: 아, 아니, 그게...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자 포졸들은 공학도를 방망이로 후려치기 시작하고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진다.

공 학 도: 흐억! 아악! 으아아아악~!

S#65. 구룡사 앞(밤)

병정이 포졸들을 이끌고 구룡사 앞에 서 있다.

병 정: (소리를 죽여) 숨을 곳은 이곳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곳을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너희는 나를 따르거라!

병정의 명령에 따라 일부의 포졸은 구룡사 주변을 빙 둘러싸고 나머지 포졸들은 병정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E)끼이익~

병정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포졸들에게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S#66. 객사 안(밤)

상 대 성: 공박사님부터 찾아야죠.

한 니 발: (이마를 손으로 탁 치며) 아차~! 공박사~.

대화를 나누던 한니발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문밖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한 니 발: (손가락을 입에 대며) 췌~!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상 대 성: 예? 뭐가요?

스 님: 얼핏 문소리가 들린 듯도 합니다만...

한 니 발: (작은 목소리) 스님, 이 시간에 여기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스 님: 해가 지면 어두운 숲을 지나 일부러 찾아오는 불자님들은 없습니다만...

한 니 발: (천천히 일어서며) 제가 잠시 살펴보고 올테니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상 대 성: 에이~ 설마 아까 그 꿈이 따라오기라도 했을까봐요?

한 니 발: (나가려다 말고 돌아보며)박사님도 참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곳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 우주선은 괜히 숨겼습니까?

상 대 성: (깜박했다는 듯)아~ 그렇지...

한니발이 밖으로 나가고 상대성과 스님은 문앞으로 옮겨 앉아 상황을 살핀다.

S#67. 대응전 앞(밤)

한니발이 살금살금 마당을 향해 가다가 인기척에 놀라 재빠르게 벽 뒤로 어둠 속에 몸을 감춘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발소리를 죽여 그 옆을 지나고, 횃불 때문에 한니발의 얼굴이 살짝 드러나지만 포졸들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숨을 멈추고 잔뜩 긴장해 있던 한니발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포졸들이 완전히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객사로 향한다.

S#68. 객사(밤)

한니발이 부랴부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문 앞에 바짝 다가가 있던 상대성과 스님을 깜짝 놀라며 문에서 떨어진다.

한 니 발: 포졸들이 왔습니다.

상 대 성: 포졸이요?

한 니 발: 예, 아무래도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 대 성: 어떻게 알고 우릴... 혹시 공박사가 붙잡혀 간게 아닐까요? 어떡하죠?

한 니 발: (난감한 표정)숫자가 너무 많아 도망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스 님: 일단 소송이 나가 주의를 끌어 볼테니 예서 은신하고 계시지요.

상대성과 한니발은 서로를 바라보며 스님을 믿을 수 있을까하는 눈빛을 교환하다가 어쩔 도리없이 그리 하기로 결정을 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스님 문밖으로 나가고 나서 두 사람은 등불을 끈다.

S#69. 구룡사 내부(밤)

스님이 대웅전 쪽으로 향하다가 포졸들과 마주치고, 스님은 합장을 하며 인사를 건넨다.

스님: 야심한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포졸 1: (급히 마주 합장하며)어구 스님 안녕하쥬?
스님: 늦게나마 불공을 드리러 오신 겁니까? 허허.

그때 병정이 나타난다.

병정: (합장하며 인사하고)야심한 시각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주변에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스님: (태연하게)수상한 자들이라니요? 오늘은 불공을 드리러 오는 분들도 없었고 아주 한적했습니다.
병정: (미심쩍은 표정)그렇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누가 안 된다면 저희가 사찰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스님: (비꼬며)뭐 이미 살펴보고 계신 듯한데 굳이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병정: (무안한 듯 눈을 피하며)뭐, 그러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좀 살펴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병정이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자 재빨리 움직여 흩어지며 불당 안으로 들어간다. 스님과 병정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이 불당을 뒤지고 나오는 포졸들.

포졸: 이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요!
병정: 객사쪽도 살펴보도록 하거라!
포졸: 알겠습니다요.

포졸들이 객사쪽으로 향하자 스님의 눈빛이 흔들림을 감지한 병정은 급히 포졸들의 뒤를 따라 뛰어간다. 스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짝 합장을 한다.

스님: 나무 관세음보살~

S#70. 객사 앞(밤)

포졸들이 객사 앞에 도착하고 병정이 뒤따라 와 그들을 멈춘다. 손짓으로 객사를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린 병정은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가 불이 꺼진 객사 안의

인기척을 살피기 위해 귀를 문에 가져다 댄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손을 뺀어 문고리를 잡고는 갑자기 문을 확 열어젖힌다.

S#71. 동헌(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종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 사또가 방 안쪽에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들어온 남자는 무릎을 꿇고 사또에게 두루마리를 건넨다.

사 또: 다 그렸더냐?

남 자: 예, 나으리~

남자에게 건네받은 두루마리를 펼쳐드는 사또, 서서히 그림이 드러난다. 공박사의 전신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 클로즈업.

사 또: (만족한 미소)잘 그렸구나. 사람들이 지나는 거리마다 하나도 빠짐 없이 방을 붙이도록 해라!

사또가 그림을 다시 남자에게 건네주자 남자는 방을 나가고 사또 혼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앉아있다.

사 또: (Na)대체 어디에서 온 놈들이란 말인가. 반란을 일으킨 일당들이 드디어 내 본심을 알아차린 것이란 말인가?...

S#72. 객사(밤)

문이 벌컥 열리고 병정이 방으로 들어온다. 어두운 방안 구석구석 횃불을 비춰보는 병정. 텅 빈 방안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병정의 미간이 일그러진다. 허리를 숙여 손으로 방바닥을 조심스레 만져보는 병정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을 알아챈다.

병 정: (일어서며)얼마 전까지 여기 있던 게 틀림없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니 주변을 살살이 뒤져라!

포졸들은 일제히 흩어지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는 병정, 다시 대웅전 쪽으로 달려간다. 병정의 모습이 사라지자 객사 지붕 위에서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한니발.

한 니 발: (속삭이듯)박사님~! 왔습니다.

상 대 성: (지붕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며)언제까지 여기 이리고 있어야 하죠?

한 니 발: 스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동태를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S#73. 대웅전 앞(밤)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포졸들이 여기저기서 모인다. 스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제자리에 서 있고, 병정이 달려온다.

병 정: (속았다는 표정으로)스님, 여기 있었다는 거 다 압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스 님: (함장하며)나무 관세음보살~

병 정: (은근히 협박하듯)말씀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막역하다 해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놈들 중 하나를 잡아들여 심문을 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나머지도 다 붙잡아들이게 될 겁니다.

스 님: (무표정하게)나무 관세음보살~

더 이상 상대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을 안 병정은 포졸들에게 철수명령을 내린다.

병 정: 애들아! 가자!

포졸들의 무리가 빠져나가고 나자 스님은 살금살금 문 앞으로 가서 동태를 살피더니 객사쪽으로 향한다.

S#74. 객사(밤)

스님이 객사 방문을 열어본다. 안에 아무도 없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스님. 그때 지붕 위에서 상대성이 스님을 부른다.

상 대 성: (작은 목소리로)스님~ 여기요 스님~

두리번거리던 스님이 지붕 위에서 두 사람을 발견한다.

한 니 발: (작은 목소리)다들 왔습니까?

스 님: (고개를 쳐들고)예,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스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한니발이 먼저 뛰어내리고 상대성이 내려오는 걸 아래서 받쳐준다.

스 님: (빙긔 웃는다)잔나비도 아니고 잘도 오르셨습니다 그러 허허.
상 대 성: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우릴 찾는 게 맞나요?
스 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말을 늘이며 상대성을 쳐다본다.)
한 니 발: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스 님: 아무래도 일행 중 한 분이 잡혀가신 듯합니다.
한 니 발: (인상쓰며 Na)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상 대 성: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구요?
스 님: 거기까지는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행색대로 관아에 잡혀갔다면 아마도 고생 꽤나 하고 있을겁니다.
상 대 성: (한니발을 보며)어떡하죠?
한 니 발: (한숨쉬며)하아~ 구해내야 되겠죠 뭐.
스 님: 선불리 구해내려 하시다가는 두 분마저 잡히게 될지도 모르니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방으로들 들어가시죠.

세 사람 모두 방안으로 들어간다.

S#75. 방안(밤)

세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각자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다가 한니발이 먼저 말문을 연다.

한 니 발: 어차피 우리 두 사람 전력으로는 몰래 공박사를 구해 오기 어려우니까 정면돌파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 대 성: (놀라며)정면돌파요?
한 니 발: 예, 당당하게 걸어들어가는 겁니다.
상 대 성: 아니, 우릴 잡으려 안달인 사람들에게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한 니 발: 어차피 우리가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스 님: 소승도 이 거사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숨어다닐 수도 없는 터, 게다가 이 고을의 사또의 성품이라면 이해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상 대 성: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스님도 저희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으셨

짧아요.

스 님: (빙긋 웃으며)지금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 의심이란 무명에서 오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만큼 상대를 경계하는 의심도 풀리기 마련인 겁니다.

한 니 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만 나타나게 된다면 곧바로 잡혀갈 게 뻔하니까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면 스님이 동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 님: 그야 뭐 큰 일이 아니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니 발: (고개를 숙여 인사)감사합니다. 스님.

상 대 성: (마음이 안 놓이는 표정)그게 생각대로 된다면야 좋겠지만...

S#76. 감옥(밤)

(E)으으으~ 으으으~

공박사가 감옥 안에 갇혀 만신창이가 된 채 누워 끙끙 앓고 있다. 건너편 감옥 안에서 죄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S#78. 동헌(밤)

포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동헌 위 하늘에 달이 떠 있다. 서서히 구름이 흐르며 달빛을 가린다.

S#78. 마을 길(다음날 아침)

마을 길을 상대성과 한니발 그리고 스님이 걷고 있다. 마주 오던 사람들은 놀라 길을 비켜서고 비켜선 사람들은 세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수군거린다. 상대성과 한니발은 생전 처음 보는 옛마을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신기해하고, 스님은 점잖게 그들을 인도한다. 꼬마 아이들은 그들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뒤를 졸졸졸 따라 간다. 한 아낙네가 그 중 한 꼬마 아이의 팔을 끌고 데려가며 엉덩이를 때린다. 얼마 후, 길 앞쪽에서 포졸들이 달려온다. 당황한 상대성과 한니발은 제자리에 멈춰서고 다가온 포졸들이 그들을 포위한다.

포 졸: (잔뜩 경계하며)게 서시유~

스 님: (여유롭게 합장하며)아침은 하셨습니다까?

포 졸: (당황하며)스 스님은 웬일이시래유?

스 님: 사또 어른을 좀 만나뵈러 가는 길입습죠.

포 줄: (상대성과 한니발을 흘끔거리며)저놈들은 어찌된 일인가유?
스 님: 제 일행이오니 그리 놀라실 필요없습니다.
(상대성을 돌아보며)자 가지지요.
포 줄: (창으로 그들을 견제하며)자, 잠깐만유!
스 님: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창끝을 잡아 옆으로 치우며)아이고, 이거
아주 잘 알아놓으셨습니다. 그냥 저희와 함께 가지지요.

스님은 포졸들을 해치고 일행을 이끌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상대성은 스님의 뒤에
바짝 달라붙어 눈치를 보며 걷고, 한니발은 금방이라도 싸울 듯한 눈빛으로 포졸들
을 노려보며 뒤를 따른다.

S#79. 동헌(아침)

포졸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 들어온다.

포 줄: 나으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요~!

포졸의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관복차림의 사또가 나온다.

사 또: 왜 이리 호들갑인게냐!
포 줄: 나으리! 놈들이 오고 있구먼유~
사 또: 놈들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포 줄: 아, 그러니께, 그 뭐여, 그 요상한 오랑캐 차림을 한 놈들 말입니다
요!
사 또: (놀라며)뭇이라?!
포 줄: 그러니께, 시방 그, 그놈들이 이쪽으로 지발로 걸어 오고 있다니께
유!
사 또: (동헌이 찌렁찌렁 울리는 큰 목소리로)여봐라! 게 누구 있느냐~!
(포졸에게)너는 어서 관졸들을 모두 모아 놓도록 하거라!
포 줄: (허리를 굽히며)예, 나으리~!

포졸은 재빨리 다른 포졸들을 모으러 가고 사또는 마루 위에 서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비장한 표정을 짓는다.

S#80. 감옥 안(아침)

인력이 보충되어 감옥 안의 경계가 강화된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

들리는 어수선한 소리에 죄수들이 웅성거린다. 공학도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끄끙거리고 있다.

죄 수 1: 밖에 뭐 일 생긴거 아냐?~

죄 수 2: 그렇게 말여~ (보초에게)어이~ 포졸양반! 거, 밖에 뭐 큰 일이라도 났는게벼?

포 졸: 아,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음서 여긴 왜 들어왔대~?

죄 수 2: (침을 뱉으며)에이~ 뻘! 지랄을 허네~ 아, 갈쳐주기 싫음 기냥 말을 말든가~!

죄 수 1: 듣자허니 저치가 그 뭐여, 사대분가 뭐가 하는 작자들이 보낸 자객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 혹시 패거리들이 관아를 치러 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죄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S#81. 관가 입구(아침)

문이 열리고 스님이 상대성과 한니발을 이끌고 들어온다.

그들이 들어서자 순식간에 포졸들이 그들을 에워싼다.

포졸들을 헤치고 병정이 앞으로 나선다.

병 정: (노려보며)스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위를 한 번 빙 둘러보는 스님, 상대성과 한니발은 주춤한 채로 경계를 하며 서 있다.

스 님: (미소 지으며)어이구 이리 다들 마중을 나와주시니 이거 황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 (한 손으로 합장)나무 관세음보살~

병 정: (화를 낸다)역적놈들과 손이라도 잡으신겁니까?!

스 님: 허허허, 역적과 손을 잡다니요, 소승은 그저 하찮은 출가인일 뿐입니다.

스님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얼굴이 붉어지는 병정,

병 정: (칼을 뽑아 내밀며 큰 소리로)저 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병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나와 그들을 붙잡는다.

상 대 성: 스님~! 스님~!

상대성은 어쩔 줄 몰라 스님만 바라보며 외치고, 한니발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묶이지 않으려 애쓴다.

그들을 포박하던 포졸 하나가 병정에게 묻는다.

포 졸: 저기...스님은 어찌할갑쇼?

병 정: (잠시 망설이다가)포박하거라!

잠시 대장의 눈치를 보던 포졸은 선뜻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다가 어기적거리며 스님을 묶기 시작한다.

포 졸: (작은 목소리로)스님 죄송하구먼유~

스 님: 괜찮습니다. 어서 하시지요.

포졸들이 세 사람을 완전히 묶자, 병정은 그들을 이끌고 사또에게로 간다.

S#82. 동헌 마당(아침)

포졸들이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또 앞에 세 사람을 무릎 꿇린다. 그들 중에 스님이 섞여 있는 것을 본 사또는 흠칫 놀란다.

사 또: 아니, 스님께서 예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스 님: (합장을 하려다 손이 묶여 움찔하며)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또~

사 또: (옆에 있는 상대성과 한니발을 번갈아 보다가)이게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스님도 저자들과 한패였던 말씀입니까?

스 님: (미소 지으며)원, 섭섭한 말씀을... 본디 불자란 무리를 짓지 않는 법, 한패라니요~

사 또: (병정에게)어서 스님의 포박을 풀도록 하여라!

병 정: (한 발 앞으로 나서며)나리! 그건 아니 되웁니다.

사 또: 어허, 어서 풀지 않고 뭇들 하느냐!

사또의 말에 상대성과 한니발은 어안이 병병해서 스님을 바라보고, 병정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포박을 풀자 스님은 웃으며 일어나 합장을 해 보인다.

스 님: 소승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일단 일행을 하옥시키도록 하시지요.

상 대 성: (깜짝 놀라며)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 니 발: (신경질적으로 침을 뱉는다)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교회를 다니는건데~

사 또: 스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일단 저자들은 하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봐라~! 저놈들을 하옥시키도록 하여라!

포졸들이 상대성과 한니발을 끌고 간다.
끌려가는 상대성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한니발은 포졸들의 손을 뿌리치고 제발로 걸어간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사또는 궁금해 못참겠다는 듯 묻는다.

사 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스 님: (주변을 돌아보며)그러면 일단 차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으니까?

사 또: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여봐라~! 다들 물러가고 차를 내오도록 하거라!

못마땅한 병정은 명령대로 포졸들을 물리고 돌아서고, 사또는 스님을 방안으로 안내해 들어간다.

S#83. 감옥 안(아침)

문이 열리더니 상대성과 한니발이 붙들려 들어온다. 한쪽 구석에 엉망이 된 채 엎어져 있는 공학도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는 상대성과 한니발.

상 대 성: 공박사님! 박사님!

한 니 발: (진지하게)이런데 와 계시다니, 곱을 때려잡는 게 불법이란 걸 모르셨습니까?

상 대 성: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두 사람의 소리에 힘들게 몸을 돌려 눈을 뜨는 공학도.
반가움에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다시 쓰러진다.

공 학 도: 으으으~ 빨리도 왔네...

S#84. 사또 방(아침)

스 님: 빠르긴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또: 예, 그리 하시지요.
스 님: 그 분들은 미륵이십니다.
사 또: (어안이 병병한 채)예? 미륵이라니요?
스 님: 내세에서 오신 분들이란 말씀입습죠.
사 또: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좀 풀어 설명해주시지요.
하인(off): 나으리~! 차 대령했사옵니다.
사 또: 어서 들이도록 해라!

문이 열리고 하인이 찻상을 들고 들어와 놓고 나간다.
사또는 찻주전자를 들어 스님에게 먼저 차를 따라 주고 자신의 잔도 채운다.
찻잔을 든 스님은 잠시 차의 향기를 음미하고 나서 말을 잇는다.

스 님: 에~ 그게...

S#85. 감옥 안(아침)

공 학 도: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말~도 안돼! 그럼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상 대 성: (고개를 끄덕이며)그렇게 됐네요...
한 니 발: 집에 뭐 맛있는 거라도 숨겨놓고 오진 않았겠죠? 극복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공 학 도: (체념하듯 한숨)후우~~.
상 대 성: 그나저나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원, 아까 보니까 사또랑 무슨 친분관계라도 있는 것 같던데...
한 니 발: 그런데 이상한 건, 만약에 사또한테 우릴 팔아넘길 거였으면 구룡사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을 때 진작 그랬을텐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 대 성: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한 니 발: 제발 그렇다면 좋겠지만...

한니발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보초상태와 인원을 파악하더니 다시 말을 잇는다.

한 니 발: (한숨)후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관람료는 얼마나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한니발의 말에 상대성이 주위를 둘러보자,
다른 감방 사람들이 촌촌하게 세워진 나무 기둥 사이로 고개를 빼 내밀고 귀죽은
듯 조용히 세 사람을 구경하고 있다.

상 대 성: (한숨쉬며)에휴~ 우리가 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새우깡 가진 거 있으세요?

S#86. 사또 방안(낮)

사 또: 그렇지 않아도 요즘 포은 선생님을 회유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쓰
는 듯하던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큰 일 아닙니까!

스 님: 소승이 속세를 떠난 지 오랜 몸이라 세간의 일에 다시 간섭을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사라도 보내 동정을 살피도록 하십
이 어떠하실지요?

사 또: 허면, 그자들은 어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스 님: 내세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니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협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사 또: 스님께서는 그들의 힘을 빌어 이성계를 저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스 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의 길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만 비로소 바른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법이
지요.

사 또: 조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제 위치도 풍전등화인데 만일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게 흘러간다면 나라 잃은 고려인들은 어찌해야 합니
까?

스 님: 나라가 바뀐다고 해도 백성들은 그대로일터, 나라를 잃는 건 백성들
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 백
성들을 잘 보살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임금이요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 또: 그야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이대로 앉아서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
다.

스 님: 그 또한 사또께서 짊어져야 할 업보라면 그리 하셔야겠지요.
(합장하며 눈을 감는다)나무 관세음 보살~

사또는 주먹으로 이마를 받치고 곰곰이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밖을 향해 소리친다.

사 또: 밖에 아무도 없느냐~!

S#87. 감옥 안(낮)

포졸이 감옥 문을 열고 상대성, 공학도, 한니발의 결박을 풀어준다. 의아한 듯 서로를 바라보던 상대성과 한니발은 공학도를 부족해 일으켜 세운다.

포 졸: (손짓하며)따라오시유~

세 사람은 포졸의 뒤를 따라 감옥을 나서고 남아 있는 죄수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S#88. 별채 안(낮)

공학도를 눕혀 놓고 스님과 상대성, 공학도가 그를 내려다 보고 있다.

스 님: 이제 곧 의원이 올테니 편히 쉬시지요.

공 학 도: (꾸꿍대며)대, 댁 같으면 편하겠어요?

상 대 성: 말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쉬세요.

한 니 발: 그래도 어디 부러진 데는 없는 것 같으니 괜찮을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의원이 들어온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공학도 곁으로 가서 맥을 짚는 의원.

의 원: (눈을 감은 채)어디 보자...

의원이 검진을 시작하자 모두들 조용히 진단이 내려지길 기다린다.

이윽고 의원이 맥을 짚던 공학도의 팔을 내려놓고 몸 구석구석을 만져본 후 말을 꺼낸다.

의 원: 별다른 이상은 없으니 탕약을 지어 드시고 얼마간 푹 쉬시면 움직일 수 있으실 겁니다.

상 대 성: 내상은 없는 건가요?

의 원: 그런 것 같습니다.

스 님: (합장하며)아미타불~ 다행입니다. 거사님께서 근력을 되찾을 때까지 예서 머물도록 하시고, 두 분은 소승과 함께 사또께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 대 성: 그러고 보니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신겁니까? 이리 쉽게 놓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 님: 자비는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게 아니지요. 누구나 자비로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게지요.

한 니 발: 대가없는 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협조적이라고 해도 고지 곧대로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스 님: 그야 어찌되었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상 대 성: 여기까지 왔는데 뭐 더 겁낼 게 있나요? 일단 만나보죠~.

상대성이 먼저 일어서자 스님이 따라 일어서고 못미더운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니발도 따라 일어난다.

S#89. 사또 방(낮)

병정이 사또와 대화를 한다.

사 또: 서둘러야 하네!

병 정: 다급한 상황이면 손을 쓰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사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 이상 여기도 온전치 못하게 될걸세. 혹여 움 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불리 대면하지는 말게! 명심하게!

병 정: (고개를 숙이며)예.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스 님(off): 계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또는 병정에게 물러가라는 눈짓을 주고,
병정이 나가면서 문을 열자 밖으로 스님, 상대성, 한니발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스 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사 또: (자리에서 일어나며)어서 들어오시지요.

스님은 두 사람을 이끌고 방안으로 들어온다.

사 또: (스님께 손을 내밀어 청하며)편히 앉으시지요.
(명하게 서있는 상대성과 한니발을 번갈아 보며)두 분도....

스 님: (상대성의 팔을 끌어 당기며)괜찮습니다. 앉으시지요.

상대성과 한니발은 쭈뼛쭈뼛 사또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는다.

S#90. 길(낮)

(E)말발굽 소리

평상복을 한 병정이 다른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고 있다.

병 정: 이랏!

채찍질을 하며 말을 재촉하는 병정의 표정이 비장하다.

S#91. 사또 방(낮)

서로의 눈치를 살피느라 어색한 침묵이 감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스님이 먼저 입을 연다.

스 님: 허허허, 사또께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긴장들 푸시지요.

스님의 말에 사또가 입을 연다.

사 또: (헛기침하며)어험, 험, 그대들의 말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확인하러 사람을 보냈소만...
(무서운 눈빛으로)만일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यो.

사또의 눈빛이 기분 나쁜 듯 한니발이 잔뜩 인상을 쓴 채 답한다.

한 니 발: (눈싸움을 하듯 노려보며)사실이라면 어쩔겁니까?

스 님: 허허, 왜들 이러십니까. 진정들 하시지요.

사 또: (헛기침)으흠, 스님께 대강의 말을 들었소.
그대들 말에 의하면 이성계가 왕이 된다하셨는데, 좀더 소상히 들려줄 수 없겠소?

상 대 성: 저희도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구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사 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아니, 그게 안다는 말씀이요~ 모른다는 말씀이요?

상 대 성: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성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방원마저 날 뛰는 판국인데 확실치도 않은 그대들 말만 믿고 내 어찌 움직일 수가 있겠소.

상 대 성: 그런데 사또께서는 도대체 어느 편이신건가요?

사 또: (고개를 내밀어 바깥의 동태를 살피다가)이성계가 무신들을 제 마음대로 부리고는 있소만 나는 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한 니 발: (다리를 바꿔 앉으며 비꼬듯)오래 살긴 텃군.

스님이 눈치를 주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둘러보는 한니발.

상 대 성: 그렇다면 사또께서도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겁니다.

사 또: 그게 무슨 말씀이시요?

상 대 성: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나면 공양왕이 폐위되고 원주로 보내 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견제세력은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 또: (심각한 표정으로)허면 그게 언제란 말씀이시요?

상 대 성: (답답한 듯 한숨쉬며)그게 언제인지는 저두 잘 모르구요... (한니발을 보며)지금이야 정확히 언제지 알아야 대강이라도 알죠.

사 또: 지금은 공양왕 4년이오만...

상 대 성: (놀라며)4년이요?

사 또: 그렇소만...

상 대 성: (다급하게 묻는다)그럼 지금이 몇월인가요?

사 또: 4월이라오.

상 대 성: 4월에 정몽주가 죽고 석달 뒤에 공양왕이 폐위된다구요!

상대성의 말에 사또는 놀라며 뒤로 넘어가는 몸을 팔로 지지하며 버틴다. 스님과 한니발도 놀란 표정으로 상대성을 바라본다.

S#92. 이방원의 집(밤)

달이 밝게 빛나고 있고 넓직한 정자 위에 관료들이 모여 앉아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관료들 사이 사이에는 기생들이 끼어앉아 색기를 풍기며 술잔을 따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기생이 가야금을 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또 다른 기생이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다른 관료들이 정신없이 술판을 즐기는 가운데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서 이방원과 정몽주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방 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이 같지 않습니까.
정 몽 주: 내가 바라는 개혁은 이런 것이 아니오.
이 방 원: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선생께서 저희와 손을 잡으신다면 선생을 따르는 자들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몽 주: 개혁을 핑계로 왕조를 바꾼다면 결국 원의 꼴을 면치 못할 것이오!
이 방 원: (뒷짐을 지고 돌아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들 엇떠하리 저런들 엇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얹혀진들 엇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은 시조를 읊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다. 그를 바라보던 정몽주는 곧바로 답시조를 읊는다.

정 몽 주: (결연한 표정으로)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잇고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잇으랴

정몽주는 시조를 읊고서 그대로 발길을 돌려 자리를 뜬다. 이방원은 허탈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 정몽주가 완전히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난 후 이방원은 멀리 서 있는 남자에게 손짓을 한다. 신호를 알아들었다는 듯 그는 고개를 숙여 보이고 재빨리 문을 나선다.

S#92. 개경(밤)

병정이 부하들과 함께 몸을 숨기며 어둠에서 어둠 속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간간이 길목에 순찰을 도는 관졸들이 지나가고 주위는 조용하다.

S#93. 선죽교(밤)

복면을 한 사람들이 정몽주의 길을 가로막고 둘러싼다.

정 몽 주: 웬 놈들이냐! 이방원이 보냈더냐?!

순간 정몽주의 뒤쪽에서 철퇴가 날아와 머리를 강타한다.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쓰러지는 정몽주.

복면을 한 사내들이 쓰러진 정몽주의 상태를 살피고 나서 자리를 뜨려하는 순간 다

리 한쪽 끝에서 병정 일행이 나타난다.

병 정: 뭇하는 놈들이냐!

복면을 한 사내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멈칫한다. 병정 일행과 복면을 한 사내들은 대치를 하고 선다.

병 정: 처라~!

명령이 떨어지자 양측 간에 살벌한 싸움이 시작된다.

병정이 철퇴를 든 사내와 경합을 벌이는 동안 복면을 한 사내들의 무예가 훨씬 뛰어나 병정의 부하들이 하나씩 죽어나간다. 얼마 후 병정 혼자만 살아남고 복면 일당에게 포위를 당한다.

병 정: (숨 가쁜 소리로)정체를 밝혀라!

순간 복면 일당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든다.

O.L.

S#94. 청주 동헌 (아침)

상대성 일행이 사또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다. 혈색이 좋아진 공학도가 정신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다들 멍하니 바라본다.

사 또: (공학도를 보며)이제 기력을 회복하신 듯합니다.

순가락을 입에 문 채 다른 사람들을 번갈아 보는 공학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천천히 순가락을 입에서 뺀다.

공 학 도: (심통맞게)며칠동안 계속 피죽만 먹어봐요~!

공학도의 말에 모두들 꺄꺄꺄 웃는다.

사 또: (상대성 가슴팍을 가리키며)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태극 문양 아래 새겨진 문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문자입니까?

상 대 성: (자기 가슴을 내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아~ 이거요?

상대성 가슴 클로즈업. 태극기 아래 영어로 KOREA 라고 적혀 있다.

상 대 성: 영어라는 서양 문자인데 ‘코~리아’라고 읽죠.

사 또: 코~리~아?

상 대 성: 예, 저희가 살던 시간대의 나라이름인데, 그러고 보니 서양인들이 ‘고려’를 발음할 때 ‘코리아’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사 또: 고려? 코~리~아? 허허허, 그럴 듯하군요. 그러면 미래의 나라 이름도 고려인 것입니까?

그때 동헌 입구에서 병정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갑작스런 그의 모습에 모두들 놀라고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그에게로 달려간다.

사 또: (병정의 어깨를 붙잡고)이게 어찌 된 일인가?!

병 정: (고개를 푹 숙이며)포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 또: (큰 소리로)뭐라? 그게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병 정: 예, 송구하옵니다.

사 또: 나머지는 어찌고 혼자인젠가!

병 정: (부르르 떨며)저를 빼고 나머지는 놈들에게 당했습니다.

사 또: 어찌 된 겐지 자초지종을 이야기 해 보게!

상황을 지켜보던 한니발이 그들에게 내려와 병정을 부축한다.

한 니 발: 아니, 부상당한 병사를 그렇게 다그치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사또는 실수를 알고 하인을 부른다.

사 또: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의원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S#95. 동헌 별채(아침)

한니발이 병정의 옆구리 부상 부위를 바늘로 꿰매고 있다.

병정은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다물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결에선 의원이 못미더운 눈빛으로 한니발이 치료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한 니 발: (어눌하게 바느질을 하며)꿰매는 도구가 구닥다리긴 하지만 상처를 고정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의 원: 그래도 이불도 아니고 사람의 몸에 그리...

한 니 발: 군인이 전투에서 얻은 상처는 훈장이고, 봉제인형이 되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병 정: (아픔을 참으며)당신들은...도대체...흐읍...

한 니 발: (실을 잡아당기며)바느질 개판인 불량품 되고 싶으면 더 움직여도 좋습니다.

의 원: 그럼 저는 무얼 하면 좋겠습니까?

한 니 발: 공박사가 소독은 충분히 해 주셨으니 의원님은 빨리 상처가 낫도록 약이나 지어 주시죠.

S#96. 사또 방(아침)

사 또: (착잡한 듯 눈을 감으며)그대들 말이 사실로 판명이 됐구려.

상 대 성: 이제 어찌실 생각인가요?

사또는 섣뜻 답을 내리지 못하고 눈을 감을 채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공 학 도: 뭐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상 대 성: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사또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 학 도: 계란으로 바위치길텐데 막을 수나 있겠어요?

이윽고 사또가 입을 연다.

사 또: (눈을 뜨고 고개를 들며)선생~

상 대 성: 예?

사 또: 선생께서 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상 대 성: 돕다니요? 뭘 어떻게...

사 또: 공양왕께서 원주로 향하시는 길목을 지켜야겠습니다. 선생께서 지식이 많으시니 그들을 상대할 무기를 새로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S#97. 구룡사(낮)

마당에서 스님이 신발을 물고 달아나는 개를 쫓아다니고 있다.

스 님: (주먹질을 하며)너 이 개새...

스님이 욕을 뱉으려는 순간 한 남자가 스님에게로 뛰어오고, 다시 점잖게 합장을 하며 그를 맞이하는 스님.

남 자: 안녕하셔유 스님~

스 님: 어서 오십시오. 점심 공양은 하셨는지요?

남 자: 예, 먹었구먼유. 그보다 사또 나리께서 좀 뵈자고 하시는디 서두루 서야되겄슈.

스 님: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사또께서요?

S#98. 동헌 마당(낮)

마루 위에서는 종이를 펼쳐놓고 상대성이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고 사또는 곁에서 한니발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 또: 청교도를 따라 평구도로 옮겨 움직일 것이 분명하니 이천에서 원주로 접어드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습격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 니 발: 평구도가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천에서 원주로 접어드는 곳의 지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때 평민으로 보이는 한 무리 남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온다.

포 졸: 나으리~ 대장장이들을 데려왔습니다요!

포졸의 말에 사또는 지도를 보다 말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는 상대성을 멈추게 하고 일으켜 세운다.

사 또: 왔느냐~! 이분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실 것이니 잘 받들어 따라야 할 것이다!

대장장이들: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예~ 나리!

사 또: 이 근방에서 제일가는 대장장이들을 불러들였으니 선생께서 잘 이끌고 일을 진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 대 성: (대장장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나서)예~ 그런데 화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사 또: 당부는 해 놓았습시다만, 화약은 아무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 대 성: 제때 구하지 못한다면 직접 만들어야 할테니 염초와 유황, 숯가루를

미리 좀 준비해 주시죠.

사 또: (감탄하며)화약도 직접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 대 성: 예, 뭐 재료만 구해진다면요.

사 또: 당연히 구해드려야지요. 뭐든 달리 또 필요한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시지요. 아 참 그리고 이거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또는 무언가 두툼하게 잘 싸여진 보자기 보따리 하나를 내민다. 상대성이 보자기를 풀자 깔끔하게 다림질이 된 옷가지들이 나온다.

상 대 성: (옷가지를 들어보며)이게...

사 또: (인자하게 웃으며)세 분 모두 옷을 빨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갈아입도록 하시지요.

상 대 성: (살짝 웃으며)감사합니다.

상대성은 보따리와 설계도를 챙기고 내려와 대장장이들을 이끌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S#99. 부엌(낮)

공학도가 어린 부엌데기 소녀에게 부지런히 설명을 하고 있다.

공 학 도: (어린 아이 교육시키듯)수분 조절을 잘 해서 최대한 밥을 꼬들꼬들하게 만들어야 되요. 소금물과 담수의 비율은 3대 1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분이 조금이라도 많게 되면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부패하게 되니까 쌀과 물의 비율은 1대 1을 넘으면 안 되니 꼭 신경쓰도록 하세요~.

소 녀: 저기...선상님.

공 학 도: 네~?

소 녀: 근디 좀 쉽게 설명해주시면 안 되남유?

공 학 도: (어찌 설명할까를 생각하다가)음~ 그러니까... 밥물을 조금만 해서 고두밥을 만들어야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쥬~?

소 녀: 예~

공 학 도: 그리고 고기들은 최대한 슬라이스하게 만든 다음에 소금을 일정량 뿌린 다음 잘 통풍이 잘 되는...

소녀가 난감한 표정을 하고 서 있고, 공학도는 그 표정을 보더니 다시 말을 잇는다.

공 학 도: 고기는 아주 얇게 저며서 소금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놓도록 하세요~

공학도가 다시 설명을 해주자 그때서야 부엌데기 소녀는 웃음을 짓는다. 소녀의 웃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공학도.

공 학 도: 그런데 부모님은?

소 녀: (침울해지며)두 분 다 돌아가셨구먼유~

공연한 질문을 했다면 공학도는 소녀의 감싸 안고 어깨를 다독이며 천장을 바라본다.

공학도(Na): 내 딸도 딱 너만한 나인데...

S#100. 동헌 마당(낮)

스님이 동헌 마당에 들어선다. 상대성은 대장장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바쁘고, 사또는 대청마루 위에서 한니발과 계속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상의를 하고 있다. 자신이 온 걸 모르고 계속해서 일에 몰두하고 있자 스님은 헛기침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스 님: 으흠, 흠, 흠...

그때서야 사또는 스님이 온 걸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한다.

사 또: 스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르시지요!

스 님: (합장하며)예~ 그림...

스님이 마루 위로 오르자 한니발이 가볍게 목례를 한다. 지도를 펼쳐 놓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스 님: (의아해 하며)대관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 또: 포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스 님: (안타까운 표정으로 합장을 한다.)나무 관세음보살~

사 또: 하여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기에 보시다시피...

스 님: 허면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실 셈이십니까?

사 또: 정면으로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공양왕께서

원주로 추방을 당하신다고 하니 그때 놈들을 기습하여 옥체를 지켜 드리고 모셔올 생각입니다.

스 님: 그들의 군사가 적은 수가 아닐텐데 사또의 병졸들만으로 그게 가능 하시겠습니까?

사 또: 다행스럽게도 스님께서 모셔온 선생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사또의 말에 스님이 한니발을 바라보자 씨익 웃는 한니발, 스님은 다시 마당 한편에서 대장장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대성을 바라본다.

스 님: 공거사님은...완쾌되셨습니까?

한 니 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부엌에서 전투식량 제조법 강의중이십니다.

스 님: 허면, 소승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 또: 스님께서 예전에 나옹선사가 계시던 북악사에 계셨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스 님: 예, 그랬었습죠.

사 또: 잠시 그곳에 진을 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좀 설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의 지리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스 님: 허어~ 소승이 설봉산을 떠난지가 꽤 오랜지라...

사 또: 준비할 여유가 그닥 없으니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 님: 예~ 그럼 전갈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사 또: 여봐라! 말은 준비되었느냐!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남자가 말을 끌고 나타난다.

스 님: (당황하며)소승이 말은 잘 달리지 못합니다만...

사 또: (웃으며)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 아이에게 서찰을 들려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말을 빨리 달리는 아이입니다.

스님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짓더니 이내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기 돌린다.

S#101. 이방원의 집(밤)

이 방 원: (불호령을 친다)아직도 잡지 못한 것이냐!

마루 밑 마당에 선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남자.

이 방 원: 놈이 달아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냐! 부상당해 잘 걷지도 못하는 놈을 잡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말이다!

남 자: 워낙 날랜 놈이라...

이 방 원: 그런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잖느냐! 이런~~ 바보같은 놈들! 한 놈이라도 산 채로 붙잡아 왔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도대체 놈들이 어디서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네놈의 목숨도 성치 못할 것이다!

남 자: (허리를 더 숙이며)예, 나리!

남자는 대답과 함께 집을 나가고, 혼자 남은 이방원이 마루에 표정이 일그러진 채 서 있다.

이방원(Na): 도대체 어떤 놈들이...아버님께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아니 될 터인데...

O.L.

S#102. 대장간(낮)

대장장이 하나가 열심히 풀무질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달구어진 쇠덩이에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다.

그들의 일을 하는 사이를 지나다니며 상대성은 작업물을 체크하는데, 한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그에게 다가온다.

남자의 손에서 상대성에게 건네지는 물건 클로즈업되면 매끈하게 만들어진 총신의 모습.

O.L.

S#103. 동헌 마당(낮)

한니발이 포졸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전투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포졸이 한니발을 붙잡고 넘어뜨리자 순간적으로 다리사이로 포졸의 목과 한쪽 팔을 감아 조르며 트라이앵클 쇼크를 구사하는 한니발, 괴로워하다가 포졸이 한니발의

다리를 치며 행복의사를 나타낸다.

포 졸 들: (감탄하며)오오~~!

다른 포졸을 불러 다시 힘을 겨루다가 넘어진 상대의 한쪽 팔을 가랑이 사이로 끼운채 힘껏 젖히며 암바를 선보이는 한니발, 역시 행복의사를 나타내는 포졸.

포 졸 들: 오오~~!

포졸들은 한니발의 시범을 보며 엉성한 동작이지만 모두들 열심히 따라한다. 그 제일 앞에 병정의 모습이 보인다.

O.L.

S#104. 동헌 뒤뜰(낮)

부엌데기 소녀가 염장한 고기들을 널어놓고 있다. 잠시 후 한편으로 공학도가 고기를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나타난다. 그걸 바라본 소녀가 달려가 바구니 내리는 걸 도우려 손을 내밀고 짐을 내려놓은 공학도는 웃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O.L.

S#105. 대장간(밤)

완성된 소총을 확인하려 방아쇠를 톡톡 당겨보는 상대성, 열심히 계속해서 풀무질을 하고 있는 대장장이들 사이로 사또가 나타나서 격려를 한다. 상대성이 사또에게 총을 건네자 신기한 듯 감탄하며 이리 저리 총을 살펴보는 사또.

O.L.

S#106. 부엌(아침)

발효시킨 곡물을 찹통에 넣고 수증기를 걸러 모아내고 있는 공학도. 수증기가 식어 액체로 변한 것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냄새를 맡아보고 팔에 발라보는 공학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소녀. 공학도가 손가락으로 액체를 가득 뜬 다음 아궁이에 가져다 대자 액체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소녀.

O.L.

S#107. 동헌 마당(낮)

손에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총검술을 연마중인 포졸들.
잘 정돈된 동작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포졸들의 제일 앞줄에 각이 잘 잡힌 동작으로 열심히 총검술을 시연하고 있는 병정.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한니발.

O.L.

S#108. 구룡사 대웅전 내부(밤)

열심히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고 있는 스님.

O.L.

S#109. 대장간(낮)

만들어진 소총들을 마차에 옮겨싣는 대장장이들.
짐을 다 싣고 나자 대장장이들 하나하나 모두 악수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마차에 오르는 상대성.

O.L.

S#110. 산속(낮)

일렬횡대로 엮드려 소총을 조준하고 있는 포졸들.
한 포졸이 한쪽발을 들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한니발, 포졸이 가진 소총을 들어 약실을 확인한다.
확인이 끝나고 총을 돌려준 다음 구렁에 따라 저마다 격발하는 포졸들.
나무로 세워진 목표물들을 스쳐가 땅에 박히는 총알들.
병정이 한쪽 눈을 감고 조준을 한 후 방아쇠를 당기자 정확히 과녁에 명중하는 총알. 병정과 한니발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는다.

O.L.

S#111. 사또 방(밤)

사또를 중심으로 상대성, 한니발, 공학도, 스님, 병정이 빙 둘러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 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북악사에서는 답신이 있었습니까?
스 님: 예~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허락은 얻었습니다.
한 니 발: 근데 병사들의 사격 솜씨가 아직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공 학 도: 아, 총소리만 나도 겁을 낼텐데 뭐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나요?
사 또: 화통도감의 무기들을 너무 얹잡아봐서는 안 될겁니다.
한 니 발: 그건 사또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없다면 그들과 근접전을 펼쳐야 하는데 맞서 싸우기에 우리가 수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상 대 성: 그래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일단 이천으로 이동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거기 도착해서 더 훈련을 하면 안 될까요?
병 정: (한니발을 보며)어떻겠습니까?
한 니 발: (잠시 생각하더니)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사 또: 그럼 채비를 갖추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테니 서둘러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결의를 다진다.

S#112. 동헌 마당(아침)

포졸들이 무장을 한 채 오와 열을 맞춰 서 있고, 그들 앞에는 상대성, 한니발, 병정이 말을 타고 나란히 서 있다. 사또는 제일 앞에서 말을 탄 채 그들을 마주보고 있다.

사 또: (병정을 보며)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가!
병 정: 쉰 아홉입니다.
사 또: (고개를 돌려 포졸들에게)모두들 준비되었느냐!
포 졸 들: (일제히)예!

사또가 칼을 빼들고 신호를 하자 포졸들이 열을 맞춰 밖으로 빠져 나가고 이어 말

을 탄 네 사람은 비장한 눈빛을 서로 나눈다.

S#113. 관가 앞(아침)

포졸들이 대기하고 있고, 스님과 공학도는 마차에 탄 채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옆에서 부엌데기 소녀는 공학도의 모습을 걱정스런 모습으로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다.

잠시 후, 사또 일행이 말을 타고 나온다.

서서히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들 뒤로 누렁이가 졸졸졸 따라간다.

길을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O.L.

S#114. 이성계의 집(낮)

정도전, 남은, 조준, 배극렴이 이성계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 모두가 이성계를 극진히 대하는 자세다.

이 성 계: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국에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는 없는 법, 이제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 함이 옳은 듯합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정 도 전: 개혁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리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 준: 공양왕 폐위의 문제는 더 이상 이견이 없는 듯하옵니다.

배 극 렬: 왕께서 덕이 없고 어리석어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신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이 성 계: 경들의 생각이 나와 같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허허허.

웃고 있는 이성계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난다.

O.L.

S#114. 고려궁 선정전(낮)

공양왕이 이성계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가 보아도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이성계의 태도는 허물이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반면 공양왕의 모습은 쓸쓸하고 지쳐 보인다.

이 성 계: (당당하게)옥체 보존을 위해서이오니 제 말씀대로 원주로 가심이 어떠하신지요.

공 양 왕: 짐이 어떤 대답을 내린들 문하시중께서 뜻을 굽히시겠습니까?

이 성 계: (떨떠름한 표정으로)정몽주의 세력도 없는 판국에 무슨 미련이 더 남아서 그러십니까. 제 말대로 따르시지요.

이성계의 말에 공양왕은 대답을 선했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가만히 서 있다.

이 성 계: 이미 대신들의 뜻을 수렴한 결과니 공양군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겹니다.

공양군이라는 말에 공양왕은 일언반구 하지 않고 선정전을 나간다.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입꼬리 한 쪽을 올리며 미소를 짓는 이성계.

S#115. 왕의 침실(밤)

불이 꺼진 어둠 속에 공양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다.

- flash back -

이 성 계: 이미 대신들의 뜻을 수렴한 결과니 공양군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겹니다.

-flash back 끝 -

공양왕이 크게 한숨을 쉰다.

S#116. 이천 북악사 - 현재명칭 영월암(저녁)

상대성 일행이 산중턱에 있는 북악사에 들어선다.

절에 기거하는 주지스님이 그들을 맞이하며 합장 인사를 하자 일행 가운데서 사또가 앞서 나와 인사를 나눈다.

산길에 오르지 못한 마차에서 들고 올라온 짐을 부리기 시작하는 포졸들.

상대성 일행은 주지스님의 안내를 받아 숙소로 들어간다.

S#117. 대웅전 앞(아침)

상대성이 졸린 눈을 비비며 걸어 나온다.

맑은 공기에 한껏 기지개를 편 상대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구경을 하기 시작한다.

한참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구룡사 스님이 암자에서 나와 상대성을 본다.

스 님: 일찍 기침하셨습니다.

상 대 성: 아, 예~

스 님: 이곳은 산세가 부드러워 은은한 운치가 있습지요.

상 대 성: 그런데 신도들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곤란할텐데 오르는 길목에 무슨 표식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스 님: 불공을 드리러 일부러 품을 팔아 오시는 분들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 대 성: 그럼 하는 수 없이 잘 숨어 있어야 되겠군요.

스 님: 군졸들이야 따로 숲에 거처를 마련했으니 거사님들만 조심스레 운신하시면 될겁니다.

두 사람이 산 아래 경치를 보며 대화를 하는 동안 사또가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온다.

사 또: (옷매무새를 고치며)허허, 제가 좀 늦었나봅니다. 두 분께서 아침 경치를 독식하고 계시는군요.

스 님: (사또를 돌아보고)독식이라니요, 만물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법 어디 독식할 수나 있겠습니까~

사 또: 허허허, 그렇습니까?

세 사람은 나란히 선 채 말없이 산 아래를 굽어본다.

O.L.

S#118. 고려궁(아침)

족히 200명은 넘을 것 같은 다수의 병사들이 잔뜩 무장을 한 채 가마 뒤편에 대기하고 있고, 가마 옆에서 이성계가 공양왕을 배웅한다.

이 성 계: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어서 오르시지요.

공양왕은 잠시 이성계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가마에 오른다.

가마의 문이 내려지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고 일어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방향을

돌려 길을 튼다.

멀어져 가는 가마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성계.

S#119. 설봉산 기슭(낮)

한니발이 병정과 함께 지도를 펼치며 주변을 살펴본다.

포졸들은 숲 한 편에서 열심히 총기를 닦고 있다.

병 정: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 매복을 심어 놓았으니 놈들이 나타나게 되면 전령으로부터 신호가 올겁니다.

한 니 발: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놈들을 숲으로 유인해 전투를 벌여
공
격을 가하면 놈들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병 정: 그렇다 해도 고려의 군사들을 절대로 만만히 봐선 안 될겁니다.

한 니 발: 놈들이 총포를 가졌다고 해도 비거리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가 더 유리하고 곳곳에 부비트랩을 설치하면 쉽사리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병정이 멀뚱하게 한니발을 바라보자,

한 니 발: 우리가 가진 총이 더 멀리 나가니까 괜찮고, 곳곳에 함정을 설치해서 올라오는 걸 막자는 말입니다.

그래도 멀뚱하게 바라보는 병정.

한 니 발: (무안한 듯)좌우간 잘~ 싸우면 된다는 거죠.

병 정: (진지한 표정으로)선생께서 살던 곳에서는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 군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한 니 발: (난감한 듯 머뭇거리다가)제대 금방하니까 잘 갔다오라고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합니다.

병정이 고개를 돌려 심란한 표정으로 포졸들을 바라본다.

한니발도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총기와 다른 무기들을 체크하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웃음기 하나 없는 포졸들.

O.L.

S#120. 복약사 암자(밤)

사 또: 선생의 말씀대로라면 내일쯤이면 놈들이 마을 길목을 지나게 될 것
입니다.
상 대 성: (가슴에 손을 얹으며)너무 긴장되네요.
한 니 발: 준비도 다 갖춰졌으니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상 대 성: 그래도 전투라는 걸 해 본 적이 없어서...
사 또: (손을 내 저으며)선생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학도와 한니발을 보며)두 분도 마찬가지구요, 여기까지 도움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공 학 도: (넌지시 묻는다)부상자들을 치료하려면... 저는 아무래도 있어야 하
겠죠?
한 니 발: (냉큼 되받으며)감사합니다. 곰도 때려잡을 전력보강이 있으면 든든
할 겁니다.
사 또: 아닙니다. 마지막 무기들 배치도 끝났고, 훈련도 이제 마무리가 되
었으니 선생들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사또의 말에 잠깐 고개를 숙인 채 곰곰이 생각하던 상대성은 한니발과 공학도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상 대 성: 어차피...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어찌됐든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니 발: (고개를 끄덕이며)같은 생각입니다.

한니발이 공학도를 쳐다본다.

공 학 도: (시선을 애써 피하며)그렇긴 하지만...
한 니 발: (시선을 피하는 한니발을 계속 바라보며)사또, 한 명이라도 병력이
더 있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 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병 정: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간청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공 학 도: 이진 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는구만...

한니발이 말을 끝내자 줄곧 듣고만 있던 스님이 말을 꺼낸다.

스 님: 소승이 비록 살생을 할 수는 없으나 달리 도울 방법이 필시 있을
터이니 제게도 도울 기회를 주시지요.

스님의 말에 사또의 눈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난다.

사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 빚은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 정: 나리~ 포졸들이 오늘만큼은 원 없이 배불리 먹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 또: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로운 웃음으로)그러도록 하게~!

포졸들을 배려하는 병정의 말에 모두들 따뜻한 웃음을 짓는다.

한 니 발: 그나저나 비나 내리지 않아야 할텐데....
상 대 성: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공 학 도: (옆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자, 자~ 내일일은 내일 걱정하고 다들 손 잡으시죠.

영문을 모르는 채 옆 사람의 손을 잡는 사람들.

공 학 도: (눈을 감으며)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학도의 말을 듣고 있던 스님,

스 님: (촉촉한 눈빛으로 공학도를 바라보며)아버님께서 타계하셨습니까?
아미타불~

F.O.

S#121. 방안(아침)

F.I.

공학도가 상대성과 한니발에게 잘 빨아놓은 우주복을 건넨다.

공 학 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상 대 성: 빨래까지 하셨나요?
공 학 도: 예, 그게...

한 니 발: (우주복을 펼쳐 살피며)역시 손빨래가 최고야~!

- 공학도의 회상 -

부엌데기 소녀가 깨끗하게 뽀 우주복들을 동헌 뒷마당 양지 바른 곳에 널고 있다.
잠시 후 소금에 절인 고기를 널어놓기 위해 그곳으로 온 공학도가 그 모습을 발견
하고 제 자리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본다. 우주복을 다 널고 돌아서던 소녀가
공학도와 눈이 마주치고 수줍은 듯 도망치듯 뛰어간다.

잘 개켜진 우주복을 건네는 소녀, 활짝 웃는 공학도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 회상 끝 -

우주복으로 갈아입은 세 사람.

상대성이 옷매무새를 살피는 동안 방문을 열어보는 한니발,
잔뜩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다.

S#122. 길 위(아침)

중무장을 한 병사들의 행렬이 길을 가득 채우고 걷고 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행렬의 가운데 부분에 가마 한 채가 있고,
가마 옆으로는 말을 탄 장수들이 호위를 하고 있다.
가마의 창이 열리고 공양왕이 밖을 바라본다.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흐린 하늘처럼 쓸쓸하기 그지없다.

S#123. 설봉산 마을 입구(낮)

길 곁 수풀 사이에 숨어 동태를 살피던 포졸이 갑자기 몸을 더욱 숙여 땅에 밀착하
며 옆 사람에게 말한다.

포 졸 1: 왔어 왔어~!

포 졸 2: (놀라 몸을 낮추며)어디 어디, 온겨?!

포 졸 1: (손가락으로 길 끝을 가리키며)아 찌~기 안 보이는겨? 찌~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끝을 보며 눈을 껌벅이는 포졸2,

포 졸 2: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러잖여~

포 졸 1: 아 뭐하고 있는 거여~ 어여 나리께 알리지 앓구선~

포 줄 2: 그러 알았어!

포줄2는 슬금슬금 몸을 숙이고 빠져나가 숨겨둔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쟁싸게 말에 오르고 양 발로 말의 옆구리를 세게 친다. 쏘살같이 달려가는 말.

S#124 설봉산 자락(낮)

전투대세를 갖춘 포줄들이 집결해 있는 곳으로 포줄 하나가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달려온다.

포 줄 2: 나으리! 적들이 도착했습니다요!

말이 채 서기도 전에 말에서 뛰어내려 사또에게 소리치며 달려오는 포줄.

사 또: 그래 놈들의 수는 얼마나 되더냐!

포 줄 2: 수~도 없이 많습니다요!

보고를 들은 사또는 강렬한 눈빛으로 포줄들을 향해 소리친다.

사 또: 모두들 살아서 청주로 돌아가자~~!!

사또의 외침에 포줄들은 일사분란하게 팀을 나누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S#125. 마을(낮)

마을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는 우주복 차림의 한니발과 포줄들이 보인다.

한 니 발: 마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대피를 시켰습니까?

포 줄: 엇저녁에 미리 다들 피신을 시켰구먼유~

한 니 발: 제가 신호를 할 때까지 절대 사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포 줄: 예, 알고 있슈~

한니발은 바로 옆집으로 넘어 들어가 순식간에 지붕 위로 올라간다.

포줄들도 각자 흩어져 위치를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가 몸을 넘죽 엮드린 채 옆을 보며 수신호를 보내는 한니발,

건너편 지붕 위에서 병정이 같은 자세로 신호를 받는다.

S#126. 산 아래쪽(낮)

나무와 나무 사이 군데군데 발목 높이의 밧줄이 설치되어 있다.
그 근처로 여기 저기 포졸들이 매복해 었드려 있다. 사또가 포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포졸들도 신호를 받는 고개를 끄덕인다.

S#127. 설봉산 중턱(낮)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한 저격수들의 총구가 산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바위 뒤편에 몸을 숨긴 채 긴장을 풀기 위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저격수들.
그 가운데 상대성의 모습도 보인다.

S#128. 마을 지붕 위(낮)

공양왕을 이끄는 행렬의 선두가 마을 입구에 들어선다.
한니발과 병정은 총을 겨눈 채 숨을 죽이고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린다.
한니발의 가늠쇠 위에 선두에 선 병사의 모습이 잡힌다.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는 한니발,

한 니 발: (큰 소리로)발사~!

한니발의 신호와 동시에 일제히 터지는 총소리.

(E)탕 타당타다다당 타당탕탕!

행렬의 선두에 섰던 병사들이 쓰러지고 뒤를 따르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흩어진 다. 한니발과 병정은 계속해서 정조준을 하고 그들이 쏜 총알은 정확히 적병을 쓰러뜨린다. 급작스런 총격에 당황한 적군은 재빨리 집과 집 사이로 몸을 숨긴다.

S#129. 공양왕의 가마(낮)

한참 앞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놀란 공양왕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마 창을 열고 밖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고, 호위를 하던 장군들은 급히 가마를 피신시키며 명령을 내린다.

장 수: 서둘러 무슨 일인지 살피도록 하고 보고하라! 그리고 화포를 준비토
 록 하라!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재빨리 선두 쪽을 향해 뛰어간다.

S#130. 마을(낮)

한니발이 수신호를 한다. 신호를 받은 병정은 포졸들에게 신호를 전하고, 사격을 멈춘 포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빠져나와 후퇴를 한다. 전열을 가다듬은 적 병사들은 서서히 전진을 하기 시작한다. 주변을 경계하며 이곳저곳을 살피는 포수들 뒤편으로 화포부대가 보인다.

S#131. 가마 옆(낮)

장 수: 총포 소리가 멈췄다! 한 놈도 놓쳐선 안 되느니라!

가마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으며 불안해하는 공양왕은 밖을 향해 외친다.

공 양 왕: (초조한 목소리)바, 밖에 무슨 일이 난게냐!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고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하는 공양왕. 무장한 병사들이 겹겹으로 가마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

S#132. 마을 끝(낮)

도망을 치던 한니발이 뒤를 돌아보더니 하늘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공포탄을 쏜다.

(E)탕! 탕! 탕! 탕! 탕! 탕!

한니발(Na): (미소를 지으며)여기다 이놈들아, 잘~ 따라와야 한다!

S#133. 산 아래(낮)

사 또: 신호가 왔다! 준비하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은 일제히 활을 들고 대기한다. 한참 후 들판 멀리서 한니발 일행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정신없이 달려온 그들은 사또의 무리와 합류하고 재빨리 몸을 숨긴다.
한니발은 사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앉는다.

사 또: 어찌되었습니까?
한 니 발: (숨을 고르며)작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사 또: 놈들의 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니 발: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또: 흠~

사또는 다시 전방을 주시하고, 한니발은 몸을 움직여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

S#134. 마을(낮)

장수 하나가 말을 탄 채 바닥의 흔적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리다가 뒤를 돌아보며 외친다.

장 수: (마을 끝을 가리키며) 저 쪽이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장수의 말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일제히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포수들이 먼저 앞서 가고 그 뒤를 창을 든 병사들이 따른다.
장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수가 엄청나다.
병사들이 들판 쪽으로 얼마간 빠져나가자 화포부대가 뒤를 잇는다.

S#135. 들판(낮)

적의 병사들이 천천히 사또 일행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들판을 걷는 병사들의 수많은 발들.
그들의 발 밑 수풀 사이 군데군데 촘촘히 놓여진 젖은 짚단.
순간 공중에서 불화살이 하나 날아온다.
불현듯 나타난 화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하는 병사들.
화살이 바닥에 꽂히면서 짚단으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고 당황하는 병사들.
몸에 불이 붙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병사들.
계속해서 날아오는 불화살에 들판이 불바다가 된다.

S#136. 산 아래(낮)

활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총을 잡고 대기 하는 병사들.

사또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한니발.

한 니 발: 적들의 허리를 꿰었으니 이제 선두에 있는 놈들이 불을 피해 이쪽으로 올 겁니다.

사 또: 불길이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까?

한 니 발: (하늘을 바라보며)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 적의 숫자를 줄여놓아야 할 겁니다.

그때 포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포 졸: 나타났다~~!

사또와 한니발은 전방을 응시하고 숨을 죽이며 불길을 헤치고 나온 병사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

이윽고 적군이 나타나자 한니발이 큰 소리로 외친다.

한 니 발: 발사~!!!

신호가 떨어지자 일제히 사격이 시작된다.

- BGM 삽입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Images of broken light which dance before me like a million eyes,
That call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Thoughts meander like a restless wind inside a letter box

They tumble blindly as they make their way across the univers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Sounds of laughter shades of earth are ringing
Through my open views inviting and inciting me
Limitless undying love which shines around me like a million suns,
It calls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Jai guru de va
Jai guru de va
Jai guru de va
Jai guru de va

제대로 맞는 것보다 빗나가는 게 많은 총알들, 한니발의 사격은 백발백중이다.
적군은 느닷없는 총격에 모두들 바닥에 엎드려 몸을 숨기기 바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적군의 포수들은 대응사격을 시작한다.
적이 쏜 총알들이 나무 기둥, 땅바닥, 바위 곳곳에 스치고, 의외로 강한 화력에 사
또 일행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한다.
적들이 바로 코앞까지 도달하자 백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포졸들이 곳곳에서 밧줄
을 당기고 부비트랩이 작동한다.
발목에 걸린 밧줄 때문에 넘어지는 적군 위로 떨어져 내리는 돌무더기, 솟아오르는
대창, 발목이 휘감겨 거꾸로 매달리는 적군. 한니발도 사또도 정신없이 싸운다.
비로 인해 타오르던 불이 꺼지고 들판 저편에서 적군이 밀려든다.

사 또: (목청이 터져라)후퇴~! 후퇴하라~!!

사또는 바로 옆에서 쓰러진 적에 올라타 정신없이 파운딩을 날리고 있는 한니발을
잡아끌고 역지로 산 위쪽으로 도망을 친다.

S#137. 마을(오후)

비를 피하기 위해 빈 집으로 들어서는 가마 일행, 가마문이 열리자 공양왕이 나오
고 마당에 선 채로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맞고 한동안 서 있다. 그걸 지켜보던 장
수가 방문을 먼저 열어놓고 공양왕을 부른다.

장 수: 마마, 어서 드시지요.

공 양 왕: (눈을 감으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나즈막히)그냥 두시게~

그 모습을 아무 말 못하고 지켜보는 장수, 떨어지는 빗물이 세차게 공양왕의 얼굴
에 부딪혀 부서진다.

S#138. 산 중턱(오후)

산 아래쪽에서 포졸 하나가 허겁지겁 올라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 그 뒤에 달려
오던 사또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올라온다. 잠시 후 한니발이 부상당한 포졸
을 부축하며 올라오고 몇몇의 포졸들도 정신없이 도망쳐 온다. 그 모습을 본 중턱
위의 포졸들이 뛰어내려가 그들을 부축해 온다. 이윽고 살아남은 자들이 산 중턱의
일행과 모두 합류하자 저격수들이 쏟아지는 빗물이 눈썹을 타고 흐르며 눈으로 들
어가 눈을 껌벅이면서도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비속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부상당
한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병정이 외친다.

병 정: 부상당한 자들을 어서 북악사로 옮기도록 해라!
상박사님은 위로 올라가십시오.

상 대 성: 예?

병 정: 일단 여기는 저희가 맡을테니 올라가셔서 필요한 화기들을 좀 더
준비해주시지요.

상 대 성: 아 예~ 알겠습니다.

상대성은 부상자들을 도와 북악사로 올라가고, 빗소리만 산속을 가득 채운다.

S#139. 북악사 암자(밤)

방안 가득 부상당한 포졸들을 치료하고 있는 공학도, 군데군데서 신음하고 있는 포
졸들. 공학도가 상처 부위를 살피고 소독을 하고 나면 스님은 공학도가 시키는 대
로 붕대로 상처 부위를 감싼다. 차례대로 치료를 하다가 총상을 입은 포졸 앞에 앉
은 공학도.

포 줄: (괴로워 신음하며)으으...이게 왜... 왜 이렇게...아프대유~?

공학도는 총상을 살피더니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포줄을 내려다본다.

포 줄: 주...죽는...건감유?

공 학 도: 죽긴 무슨...

(애써 울컥하는 걸 참으며)아버지께서 부르시니 기쁜 일이죠.

포 줄: 을 아부지는... 집에... 집에 계시는디...

포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공학도는 자리에서 일어서 눈을 감고 애써 눈물을 삼키고, 그에게로 다가와 스님이 어깨에 말없이 어깨에 손을 얹는다.

S#140. 산 중턱(밤)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모두들 흠뻑 젖은 채 아래쪽만 바라보고 있다.

병 정: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한 니 발: (큰 소리로)예?!

병 정: 너무 조용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한 니 발: (안 들리는 듯 귀를 돌려대며 큰 소리로)뭐라구요?!

병 정: (큰 소리로)너무 조용하지 않.

병정은 한니발의 귀에 대고 소리를 치다가 그의 귀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피를 보고 말을 멈춘다. 병정의 표정을 보더니 자신의 귀를 손으로 꼭 문질러 보고 피가 묻어나오는 걸 본 한니발은 태연하게 웃더니,

한 니 발: (큰 소리로)귀를 너~무 오래 안 봤는데 고맙게도 놈들이 아주 땡~뚫어 주더라구요!

병정은 말을 더 하지 못하고 멍멍한 눈빛으로 한니발을 바라본다.

그때 아래쪽에서 빗소리를 삼킬 듯한 큰 소리의 굉음이 연달아 터지며 울려오고, 곳곳에 쉴 새 없이 포탄이 떨어진다. 포탄이 떨어지며 터지면서 여기저기 공중으로 튕겨져 오르는 포줄들.

한 니 발: (몸을 숙여 피하며 고래고래)아~ 그래 이거야! 좋아! 이제 잘 들리네~!! 아~주 잘 들린다~!!!

놀란 포졸들은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향해 사격을 시작한다.
무작정 총을 난사하는 포졸들을 말리는 한니발.

한 니 발: 사격중지~! 사격중지! 그만~!!!

한니발의 외침에도 사격을 멈추지 않는 포졸들.

한 니 발: (목이 터져라)그만 쏘라구~~!!!

- 시간 경과 -

포격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감돈다.
여기 저기 포졸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한쪽에 사또가 쓰러져 있다.
한니발은 쓰러져 있는 사또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상태를 살핀다.

한 니 발: (상체를 부축해 들어 올리며)사또, 사또, 괜찮으십니까?

사 또: (고통을 참으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이제... 됐습니다...
이, 이제...그만 싸우고 피하십시오.

한 니 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뭐라고요? 뭐라는지 안 들린다구요!
제발로 일어서서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E) 탕~!

순간 총성과 함께 사또를 부축하고 있던 한니발의 몸이 휘청 흔들린다.

한니발(Na): 에이 씨~ 안...들 린 다 니 까 그러네.

한니발의 몸이 사또의 몸 위로 폭 쓰러진다. 총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신의
몸 위로 쓰러진 한니발을 양팔로 힘겹게 껴안아 올리며 양 손으로 그의 귀를 감싸
막으면서 천천히 눈을 감는 사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사또(Na):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S#141. 복악사(밤)

상대성과 공학도, 스님이 암자 앞에 나란히 서서 불안한 듯 총성소리를 듣고 있다. 그때 그들 앞에 흙으로 범벅이 된 포졸 몇 명이 나타난다. 한 명은 병정을 부축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또와 한니발의 시신을 들쳐 매고 있다. 달려가 그들을 도와 방으로 옮기는 세 사람.

S#142. 암자 안(밤)

상대성이 멍한 표정으로 한니발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 옆에서 병정은 이를 짝 다문 채 표정이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워하고, 공학도가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며 허벅지에서 쇠구슬 탄환을 빼낸다. 탄환을 빼 낸 자리를 소독하며 공학도가 묻는다.

공학도: (홀쩍거리며)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병정: (땀을 들이고 부상자들을 둘러보더니)여기 남은 사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공학도: (울먹이며)이제 다 끝난건가요?

상대성: (벌떡 일어서며)끝나긴 뭐가 끝나!

공학도와 병정이 상대성을 바라본다.

상대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입 한쪽을 씹룩거리며 울음을 참던 상대성 터벅터벅 밖으로 나간다. 놀란 공학도가 그 뒤를 따라 나간다.

S#143. 암자 뒤편(밤)

상대성이 지붕 밑에 젖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 놓았던 무기를 꺼내든다.

상대성: 공박사님, 만들어 온 소독용 알콜 다 주세요.

공학도: (무기를 보고 놀라며)이, 이게 뭔가요?

상대성: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친다)알~콜 달라주세요~~!!

산 아래 쪽에서는 아직도 총성이 산발적으로 들려온다.

O.L.

S#144. 마을 빈집(밤)

처마 밑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탈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공양왕.

O.L.

S#145. 복악사(밤)

움직일 수 있는 포졸들 몇몇은 총을 들고, 상대성은 화염 방사기를 들고 대웅전 앞에 서 있다. 그 옆에서 그를 말리고 있는 공학도.

공학도: (엉엉 울며 팔을 붙들고)이제 그만해! 그만 하라구~~

상대성: (눈물을 흘리며)어차피 돌아갈 데도 없잖아.

공학도: (애원하듯)그런다구 뭐가 달라지는데에~~ 그만 하자구~
역사란 게 우리가 뭘 한다구 해서 바뀌는게 아니라구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그래~~

상대성: (코를 한 번 훌쩍거리고 비장하게)어차피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구!

순간 누군가 상대성의 목덜미를 세게 내려치고 상대성은 그 자리에 기절을 해 쓰러진다. 공학도가 돌아보자 다리를 절며 서 있는 병정.

병정: (상대성이 들고 있던 화염방사기를 주워 들고)떠나십시오. 두 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공학도가 울먹울먹 말을 잇지 못하자 병정이 그를 끌어당겨 안는다.

병정: (공학도를 안은 채로)청주목에 돌아가셔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차마 아무런 말을 못하고 울먹이던 공학도 곁으로 다가오는 스님.

스님: 길을 안내할테니 소승과 함께 떠나시지요.

O.L.

S#146. 산속(밤)

숲을 헤치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스님과 공학도. 포졸 하나가 상대성을 들쳐업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스님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가는 누렁이.

O.L.

S#147. 북악사 앞(밤)

적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올라온다.
그들의 앞쪽에 총구를 겨눈 채 포졸들이 서 있다.
곁에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서 있는 병정,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친다.

병 정: 공격하라~~!!
포 졸 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병정의 외침과 함께 일제히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지르며 사격을 개시하는 포졸들. 병정의 무기에서 무서운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빗속을 가르다.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수십 개의 화살들이 몸에 와서 꽂힌다. 화염방사기를 켜 채 쓰러지는 병정. 하늘을 향해 방사기에서 솟구치는 화염. 병정의 눈동자에 화염이 아주 밝게 반사되어 빛나고 있다.

white out

S#148. 2031년 청주 우주 발사기지(낮)

white in
웅장한 BGM.

육중한 크기의 엔진에서 불꽃이 타오르며 우주선이 솟아오른다. 우주선이 하늘 높이 사라지고 나자 신발 한 짝을 입에 문 채 발사대 밑을 쏜살같이 달려 지나가는 누렁이.

S#149. 우주선 내부

우주복을 착용한 채 계기판과 각종 신호들을 확인하는 선장과 항해사.
그들의 뒤편으로 긴장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 있는,
안심이 되지 않는지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어서 출발하기만을 바라는 듯 들뜬 표정을 하고 있는 총 세 명의 탑승자.
그 중 허불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탑승창 밖으로 카메라 줌 아웃되면서

점차 육중한 우주선의 선체가 드러난다.
우주선 전체의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O.L.

S#150. 청주 무심천(과거, 낮)

무심천 옆, 불모(佛母)가 불상 조각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마무리를 끝내고 불모가 멀찌감치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합장을 해 올린다. 그 제일 앞쪽에 서 있는 상대성과 공학도, 불상의 얼굴이 서서히 클로즈업 되면 한니발의 얼굴과 매우 흡사한 표정이다.
합장을 끝낸 상대성이 불상 아래 쪽에 한니발이 남긴 우주복을 잘 묻는다.

O.L.

S#151. 우주선 변속 제어실

무섭도록 빨리 움직이는 변속 코어.
순식간에 에너지 파장이 부풀어 오르고 폭발한다.

선장(off): 비상사태! 비상사태! 전원 조타실로! 전원 조타실로!

O.L.

S#152. 숲속(낮)

우주선이 숲속으로 추락한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허불.
어안이 멍멍한 채 숲을 헤치며 걷는 허불.
잠시 후 그의 뒤쪽에서 우주선이 폭발한다.

- 시간 경과 -

허불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교회 십자가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S#153. 교회 앞

앞 마당에서 신도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물어뜯고 놀고 있는 새끼 누렁이.
허불이 마당에 들어서자 마구 짖어댄다.
잠시 후 교회 문이 열리고 웬 스님 한 명이 시주받은 음식을 들고 나오고,
신발을 물어간 새끼 누렁이는 얼른 도망을 친다.

스 님: 저런 개스에...(옥을 하다가 허불과 눈이 마주치고 멈칫한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스님에게 다다가는 허불.

허 불: 실례지만,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스 님: (경계하는 표정으로) 여기는... 청주목 구룡교회입니다만...
 차림새를 보아하니....

F.O.

엔딩크레딧과 동시에 BGM(Across the universe)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Images of broken light which dance before me like a million eyes,
That call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Thoughts meander like a restless wind inside a letter box
They tumble blindly as they make their way across the univers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Sounds of laughter shades of earth are ringing
Through my open views inviting and inciting me
Limitless undying love which shines around me like a million suns,
It calls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Jai guru de va om ~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Jai guru de va
Jai guru de va
Jai guru de va
Jai guru de va

S# 에필로그 장면 1.

스님과 공학도가 함께 땀을 닦아가면서 교회를 짓고 있다.

소녀: (머리에서 광주리를 내려 놓으며)아부지~!

부엌데기 소녀가 그들 옆으로 새참을 날라오고 공학도의 땀을 닦아주며 밝게 웃는다.

S# 에필로그 장면 2.

경복궁, 관복을 입은 학자들이 모여서 화염방사기를 이리 저리 만지작거리며 골똘히 연구를 하고 있다. 방아쇠를 잘못 만져 찢끔 화염이 발사되어 학자의 몸에 옮겨 붙고 팔짝팔짝 튈다.

마당에서는 상대성이 선비 복장을 하고 친시(親試)을 보고 있다. 멋드러진 다른 사람들의 글씨에 비해 형편없는 상대성의 필체.

과거 시험을 보는 선비들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짓고 있는 태조 이성계.

글씨를 다 쓴 상대성은 자신이 쓴 종이를 들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 나간다.

그를 멍하니 바라보는 감독관들.

S# 에필로그 장면 3.

스님이 용화사 미륵보전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

스님 앞으로 세워져 있는 세 개의 석불.
석불들의 모습 Pan.
얼굴들이 어딘지 상대성과 한니발, 공학도를 닮아있다.

S# 에필로그 장면 4.

상당산성 성벽 아래쪽에 상대성이 목재로 된 상자 안에 우주복에서 떼어낸 태극기와 우주선을 출발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 그리고 자신이 과거시험을 치른 종이를 잘 접어 넣고 상자를 땅에 파묻는다.

O.L.

S# 에필로그 장면 5.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
상당산성 성곽 밖에서 초등학교 시절의 상대성과 허불이 땅 속에서 상자를 꺼낸다.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힌 종이 클로즈업.
영망으로 써진 한자들 ‘水貝二水西投樓高麗-愛無遠’

S# 에필로그 장면 6.

우주선 발사 장면이 방송되고 있는 스크린 앞.

TV소리: 드디어 스페이스셔틀코리아 엠투(SSK-M2)가 웅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들이 무사히 화성에 도착하기를 기원하며 이 장면을 함께 보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스크린이 벽면 위쪽에 걸려있는 상대성의 사진들.
그 옆에 걸린 액자 속 붓글씨. ‘水貝二水西投樓高麗-愛無遠’

S# 에필로그 장면 7.

어린 상대성이 한자가 적힌 종이를 내려놓고 상자 속에서 사진을 꺼내 바라본다.
사진이 줌인되면서 폴샷 클로즈업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진 속 인물들,
상대성은 환하게 웃고 허불은 무언가 못마땅한 표정이다. 플래시가 터지고 서서히

줄아웃되면서 빛 바랜 사진이 된다.

- 끝 -